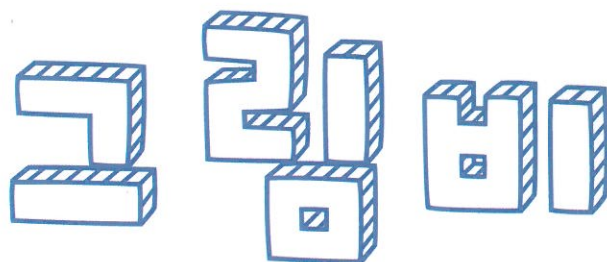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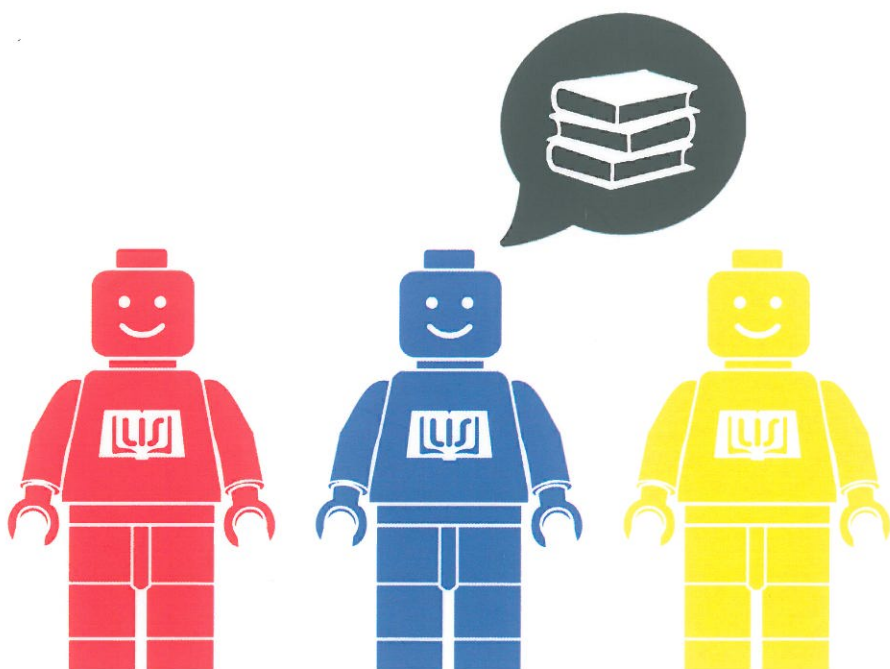
목록

2018_1	1
2018_2	2
2018_3	3
2018_4	4
2018_5	5
2018_6	6
2018_7	7
2018_8	8
2018_9	9
2018_10	10
2018_11	11
2018_12	12
2018_13	13
2018_14	14
2018_15	15
2018_16	16
2018_17	17
2018_18	18
2018_19	19
2018_20	20
2018_21	21
2018_22	22
2018_23	23
2018_24	24
2018_25	25
2018_26	26
2018_27	27
2018_28	28
2018_29	29
2018_30	30
2018_31	31
2018_32	32
2018_33	33
2018_34	34
2018_35	35
2018_36	36
2018_37	37
2018_38	38
2018_39	39
2018_40	40
2018_41	41
2018_42	42
2018_43	43
2018_44	44
2018_45	45

2018년 한성대학교
문헌정보전공 소식지
(도서관정보문화트랙/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그림비는 순 우리말로 '청년', '젊은이'를 의미합니다.



공식홈페이지



페이스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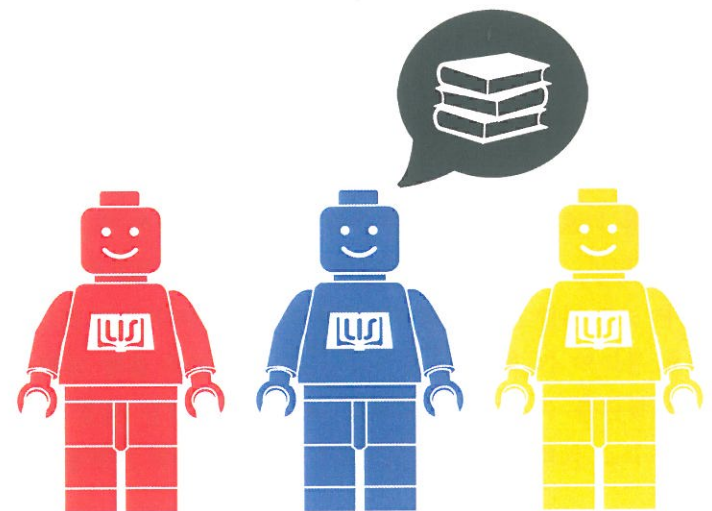
카툰클럽



응용인문학부
문헌정보전공
LIBRARY INFORMATION SCIENCE

그림비

그림비는 순 우리말로 '청년', '젊은이'를 의미합니다.



내년부터 『그림비』를 웹출판으로 전환하고 인쇄본 발간은 중단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편집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더 많은 학우들이 『그림비』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번 호가 인쇄본으로는 마지막이라고 하니 아쉬운 마음에 이전 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동안 출간한 『그림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터인데, 그래도 제13호(1996년 11월)가 제일 오래된 것입니다. 2010년 11월 학과 30주년(우리 학과는 1980년 10월에 설립인가를 받았고 1981년 3월에 첫 신입생을 맞이함)을 기념하기 위하여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30년사: 1980-2010』를 편찬하면서 『그림비』를 수집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했으나 창간호를 비롯하여 초기에 발간된 『그림비』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정년을 하신 조인숙 교수님으로부터 『그림비』가 1992년 4월에 처음 발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간 당시 이름은 『진리의 반딧불』이었고, 지금과 같은 책자 형태가 아니라 신문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지금의 이름인 『그림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제 13호(1996년 11월)의 첫 면에 『그림비』가 드디어 신문형태에서 책자형태로 발간되었다며 기뻐하는 글이 큼직하게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창간 이후 이때까지는 신문형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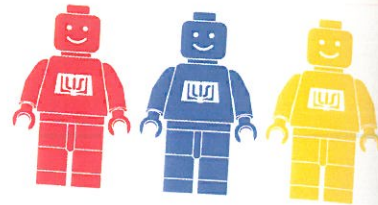
이제 또 한 번 『그림비』가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92년에 태어났으니 올해로 만 26살, 열추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이지요? 사람으로 치면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청년,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찬 말, 이라고 하기에는 지금의 시기가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인생에서 그때만큼 격동적인 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 『그림비』가 여러분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큰 변신을 하는 것은 당연해보입니다. 모쪼록 『그림비』가 출판형식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과 편집에서도 변화를 거듭하여 여러분들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학과 소식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 11월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정경희

정경희

내림비치

'내림비치'는 순 우리말로 '목차'를 뜻합니다.



문헌정보소개

1.1 문헌정보(트랙)소개	04
1.1.1 도서관정보문화 트랙	04
1.1.2 디지털인문정보학 트랙	06
1.2 문헌정보(장학금)소개	08

문헌정보전공 소모임

2.1 도활부 봉사활동 소모임	10
2.2 편집부 웹퍼블리싱 소모임	11

문헌정보전공 소식

3.1 2017 문정인의 밤(학술제)	12
3.2 우리 선배님, 멘토를 만나다	16
3.3 신입생 OT	18
3.4 새내기배움터	20
3.5 연합MT	24
3.6 대통령기록관(학술답사1)	28
3.7 청주고인쇄박물관(학술답사2)	30
3.8 스승의 날	32
3.9 2018 대동제	34

4.1 과거와현재가만난청운문학도서관	36
4.2 작은시간들이모여큰가치가되다	39
4.3 새로운 취미 게임	42
4.4 미래를 여는 힘, 도서관	44
4.5 새로운 문헌정보전공 로고	46
4.6 그림비 개편	48

5.1 통섭의 식탁	50
5.2 말그릇	53
5.3 언어의 온도	56
5.4 인생우화	60
5.5 연금술사	64
5.6 한 명	67

6.1 회장단	70
6.2 기획부	72
6.3 도활부	74
6.4 문화부	76
6.5 선전부	78
6.6 편집부	80

문정인의 이모저모

문화부 카드뉴스

학생회(집부) 소개

도서관정보문화트랙 (구 정보문화트랙)

Library & Information Culture

편집: 16오민석



도서관정보문화 트랙 소개

인류 문화를 계승하고 지적 자유를 지지하는 도서관의 가치와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지적자산인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조화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현장형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지식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요구되는 정보전문가(사서)를 양성한다.

관련분야 비전

지식정보 및 데이터 산업의 발달로 인해 정보전문가(사서, 정보분석가, 정보컨설턴트, 데이터 분석전문가 등)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

양성인력목표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에 필요한 제반 지식을 바탕으로 정보자원의 수집, 조직, 검색, 활용을 수행할 수 있는 사서 및 정보전문가 양성

교육내용

도서관과 정보관리에 관한 핵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의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

트랙교육목표

- 기초 정보관리에 대한 개념적 이해
- 핵심 정보관리역량 강화
- 심화 정보분석 및 문제해결능력 강화
- 활용 정보관리 현장 실무역량 강화

트랙육성역량

- 정보수집
- 정보조직
- 정보검색
- 정보분석
- 정보서비스

필수 교과목

- 정보학의 이해
- 서지학의 이해
- 장서관리론
- 정보자원의 기술과 접근
- 조직경영론
- 정보자원조직실습
- 도서관프로그램기획론

자격증

- 직무역량 관련 자격

정사서 2급 자격증

기록관리전문요원(대학원 또는 교육원과정과 연계필요)

연계트랙

트랙	추천트랙	진로 분야
도서관 정보 문화 트랙	디지털 인문정보학트랙	기록관리전문요원, 디지털큐레이터
	문학문화 콘텐츠트랙	출판기획자, 독서지도사, 북큐레이터
	역사문화 콘텐츠트랙	기록관리전문요원, 큐레이터
도서관 정보 문화 트랙 외	단과대 공직진출트랙	사서직공무원, 사서교사, 기록관리전문요원
	스마트도시계획 환경비즈니스트랙	지역전문가, 지역아키비스트

졸업 후 진로

- 주요

사서, 사서교사, 기록관리전문요원, 정보관리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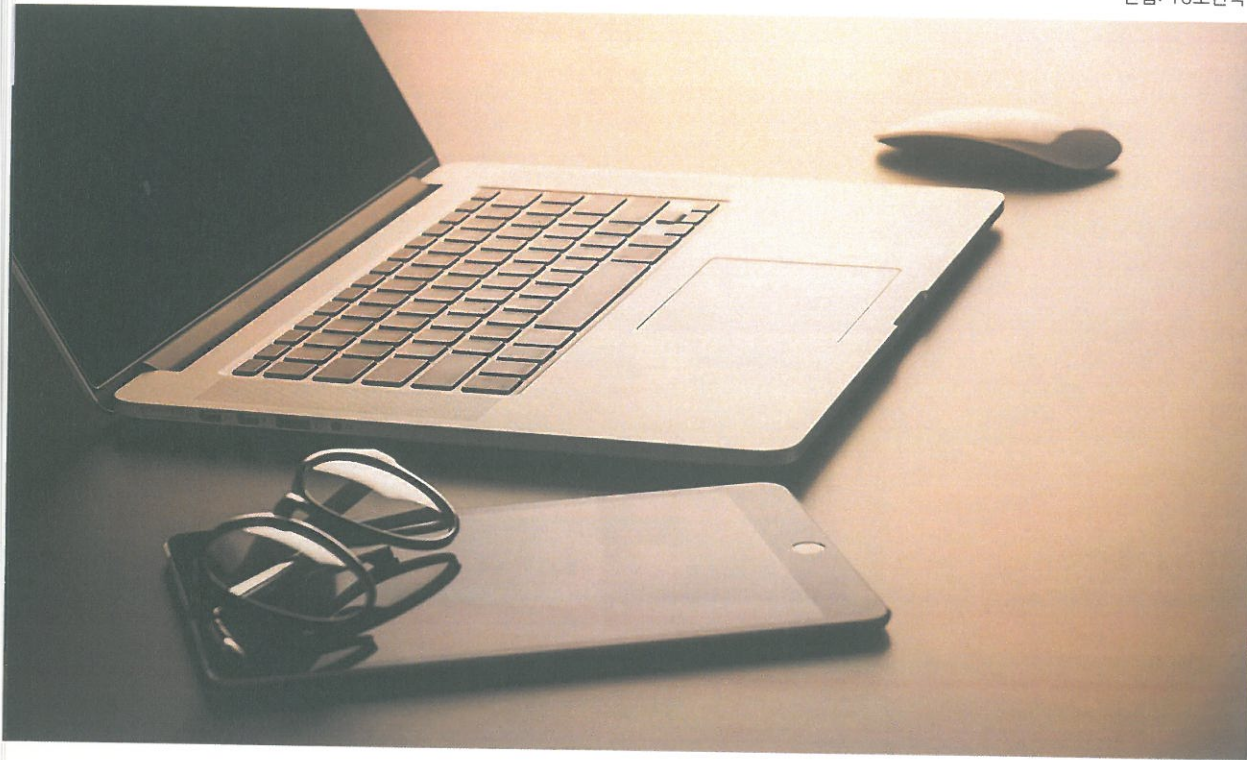
- 융합직업

전산사서, 디지털큐레이터, 출판기획자, 북큐레이터, 해외 한국학사서, 도서관 국제활동가, 지역전문가, 지역아키비스트, 정보시스템 개발자, 도서관시스템 마케터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구 라키비움비즈니스트랙)

Digital Humanities

편집: 16오민석



디지털인문정보학 트랙 소개

인문학에 디지털기술을 적용하여 인문지식데이터와 정보를 조직하고 서비스할 수 있으며 문화콘텐츠를 기획·가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

관련분야 비전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정보제공 뿐 아니라, 기획, 선별, 구조화, 서비스 등의 디지털 큐레이션이 요구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증가

양성인력목표

인문학에 디지털기술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를 기획, 축적,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디지털 큐레이터 양성

교육내용

정보기술과 콘텐츠 관리, 유통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인문지식데이터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서비스하는 현장 적용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구성

트랙교육목표

- 기초 디지털인문정보학에 대한 개념적 이해
- 핵심 기본적인 콘텐츠 기획 및 구축 역량 강화
- 심화 I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역량 강화
- 활용 문화콘텐츠 산업 현장 적용 역량 강화

트랙육성역량

- 콘텐츠 기획
- 콘텐츠 관리
- 콘텐츠 분석
- 콘텐츠 서비스
- 디지털 큐레이션

연계트랙

트랙	추천트랙	진로 분야
디지털 인문 정보학 트랙	도서관 정보문화트랙	디지털큐레이터, 사서, 기록물관리사
	역사문화 콘텐츠트랙	역사기록콘텐츠기획자, 문화유산 웹 기획자
	문학문화 콘텐츠트랙	문학콘텐츠 기획자, 디지털출판전문가
디지털 인문 정보학 트랙	빅데이터트랙	정보브로커, 데이터분석전문가
	디지털콘텐츠 가상현실트랙	인문정보콘텐츠 개발자, 디지털서비스 전문가

필수 교과목

- 인문정보콘텐츠
- 메타데이터의 이해
- 지식의 공유
- 지식구조론
- 디지털큐레이션
- 디지털서비스기획론
- 라키비움사례연구

자격증

- 직무역량 관련 자격
- 빅데이터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졸업 후 진로

- 주요
- 디지털 큐레이터, 문화콘텐츠기획자, 정보관리전문가
- 융합직업
- 역사기록콘텐츠기획자, 문화유산 웹 기획자,
문학콘텐츠기획자, 디지털출판전문가, 문화유산기관
국제활동가, 언어정보전문가, 정보브로커, 데이터분석전문가,
인문정보콘텐츠개발자, 디지털정보서비스전문가,
인터페이스디자이너, 문화유산 앱 개발자

교수장학금

신청시기

매학기 공지

신청대상

응용인문학부 문헌정보전공(16학번 기준) 및
도서관정보문화트랙 / 디지털인문정보학 트랙을
수강하고 있는 3~7학기 재학생
평점 2.0 이상

선발인원

2명

(문헌정보학전공 명예교수님과 재직교수님의 장학기금으로 지원)

장학금액

1,000,000원 (총 2,000,000원)

제출서류

성적증명서 1부

학업계획서 1부 (분량제한X)

후배사랑장학금

신청시기

매학기 공지

신청대상

응용인문학부 문헌정보전공(16학번 기준) 및
도서관정보문화트랙 / 디지털인문정보학 트랙을
수강하고 있는 3~7학기 재학생
평점 2.0 이상

선발인원

4명

(문헌정보학전공 교직원 및 선배님들의 후원 장학기금으로 지원)

장학금액

500,000원 (총 2,000,000원)

제출서류

성적증명서 1부

학업계획서 1부 (분량제한X)

학과전공튜터링

신청시기

매학기 공지

참가자격

- 튜터(Tutor) : 평점 3.0 이상 이고 해당과목 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또는 해당과목에서 B+이상이고 해당과목 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 튜티(Tutee) : 특정 전공(실습)과목의 수강 신청학생

● 튜터링 구성원 : 1과목당 튜터 1명 - 튜티4~5명

트랙소모임활동장학금

활동장학금

팀당 최대 300,000원 지원

신청시기

매학기 공지

참가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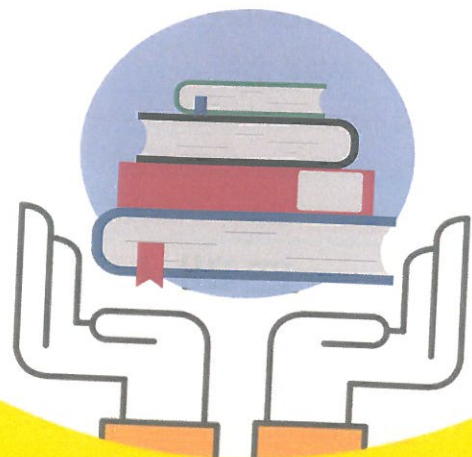
- (도서관정보문화/디지털인문정보학) 트랙기초과목(도서관과 정보, 기록과 사회)을
수강중 이거나 수강하였던 1학년 학생 5명 이상
- 응용인문학부 문헌정보전공 2~4학년 선배 1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팀

※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팀의 경우 학과사무실로 문의

도서관정보문화 /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지역사회의 도서관 현장 업무를
지원하는 봉사활동 소모임

도활부



모집기간
부원 상시모집

대상
도서관과 책에
관심있는 누구나!

장점?

문의: 문헌정보학과 사무실
02 760 4087

활동시기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

활동내용

도서관 견학/공공도서관 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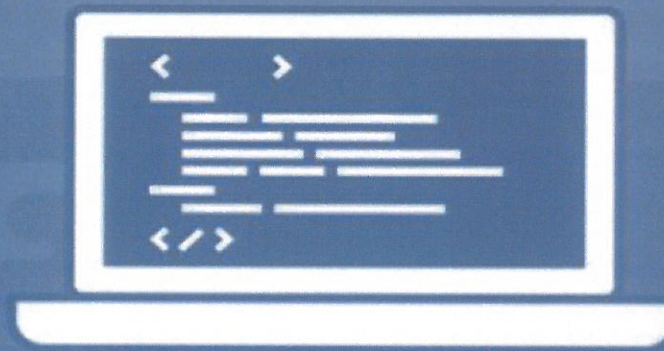
여름 하계 숙박 봉사

성북/서울 북페스티벌 참여

지속적인 봉사활동

봉사시간 획득! 트랙전공에 대한 이해, 제 2의 학습!
선후배간의 친목도모! 공동체감, 성취감 획득!
학기당 최대 비교과포인트 50PT 혜택!

잡지! 출판! 디지털! 인터넷! 콘텐츠에 관심이 있나요?



웹 퍼블리싱 소모임 "그림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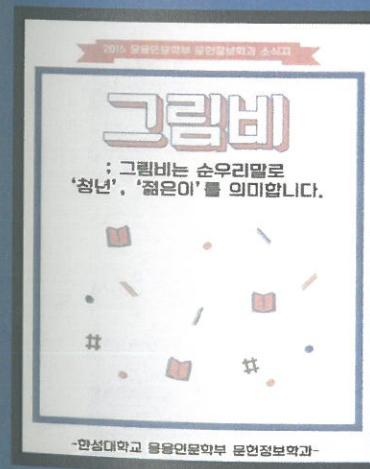
그림비는?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정보문화트랙

/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학생회 소식지

"그림비"를 인터넷에 출판하기 위한 소모임



혜택?

팀장30PT, 팀원20PT 비교과포인트 지급
학과 학술대회 발표, 수상 시 장학금 지급
(선택사항)

문의: 문헌정보학과 사무실
02 760 4087

2017 문정인의 밤 (학술제)

기사: 16강석진 | 편집: 16오민석



문정인의 밤이 깊어지다

2017년 11월 30일, 창의관 소강당에서 문헌정보전공의 연례행사인 문정인의 밤이 진행되었다. 문정인의 밤이란, 문헌정보전공(도서관정보문화트랙,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의 일 년의 결실을 발표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다. 문정인의 밤은 축제와 학술대회를 겸하여 진행되어왔는데, 2017년 당시는 문화부의 부재로 인하여 축제가 축소되고 학술대회에 행사의 역량이 집중되었다.

교수님 축사와 학생회 결산

축제의 시작은 박희진 교수님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문헌정보전공과 학생들이 일 년 동안 쌓아온 결실을 교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는 축사였다. 34대

학생회 '도란도란'의 임원 소개와 앞으로 함께할 35대 학생회 '다움'의 소개가 이어졌다. 학과 활동비 결산 내용도 발표되었다. 문헌정보전공은 2017년 총 8백 8십 6만 5천 1백 20원의 활동비 중, 4백 4십 8만 2천 9백 20원을 사용하였고, 4백 3십 8만 2천 2백 원의 활동자금을 남겼다. 이는 활동비를 상당히 많이 남긴 편이다. 학생회가 활동비를 허투루 낭비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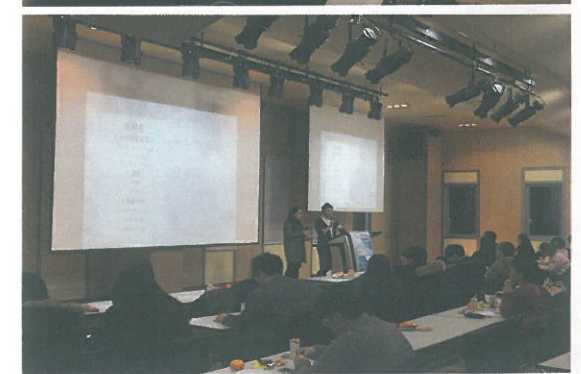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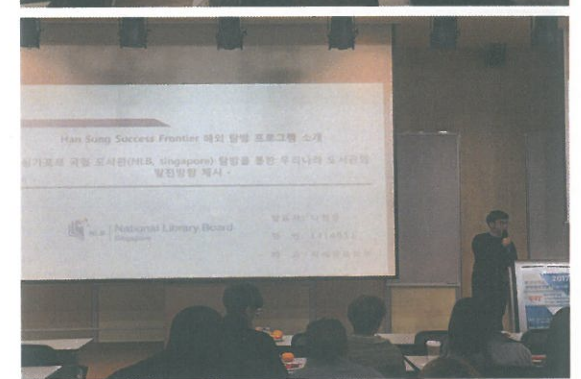
Hansung Success Frontier

학생회 결산까지 마친 후, 문정인의 밤은 본격적인 시작인 학술대회에 접어들었다. 학술대회의 첫 발표는 'Hansung Success Frontier'의 우수 수료자로 시작하였다. Hansung

Success Frontier란, 한성대학교가 학생들에게 해외 우수 기관의 학습과 탐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자신이 탐방하고 싶은 기업을 정해 신청서를 넣으면, 탐방 계획서와 면접 등의 심사를 거친 후 소수의 팀만이 최종 선발된다. 발표 제목은 '싱가포르 국립 도서관(NLB, Singapore) 탐방을 통한 우리나라 도서관의 발전 방향 제시'로, 싱가포르 국립 도서관에 대한 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싱가포르 국가도서관의 높은 수준의 이용자 서비스를 분석하고, 이를 한국도서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아시아나 드림윙즈

Hansung Success Frontier 다음에는 아시아나 드림윙즈의 우수 수료자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아시아나 드림윙즈는 "We Inspire New Generations!"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해외 활동을 후원하는 아시아나항공의 대학생 꿈 실현 프로젝트이다(아시아나 드림윙즈 홈페이지 발췌). 발표 제목은 '편견에서 평등으로'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제작 및 배포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미국의 여러 도서관을 탐방하고 연구하는 내용이었다.





트랙 소모임 활동

아시아나 드림윙즈 수료자의 발표가 끝난 후, 트랙 소모임 활동의 발표가 이어졌다. 첫 발표는 '도사친(도서관을 사랑하는 친구들의 모임)'의 발표였다. '도사친'은 전공 관련 지식 구체화와 역동적 개인 활동과 단체활동을 도모하는 소모임으로, 해당 활동을 통해 전공지식에 대한 숙달과 체화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발표하였다.

두 번째 팀은 '문헌정보 그게 뭐죠'로, 문헌정보학, 그리고 도서관정보문화트랙, 디지털인문정보학의 기반이 되는 지식을 다져가는 소모임이었다. '문헌정보 그게 뭐죠'는 듀이 등의 도서관에 대한 서적의 독서감상 활동과 연구를 통해 도서관의 역할, 문헌정보의 의미, 의의, 가치 등을 학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세 번째 팀은 '문헌정보학 청년들'이었다. 문헌정보학 청년들은 도서관 체험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페이스북을 직접 운영하여 활동 계획과, 도서관 프로그램 일시 등을 공지하고, 청주문학 도서관 윤동주 문학관, 성북 책모꼬지(북 페스티벌), 성북 점자 도서관 등을 견학하고, 도서관 사서의 실전 역량을 쌓았다.

마치며

문정인의 밤과 학술대회는 문헌정보전공의 열매와도 같은 행사이다. 각종 활동을 결산하고 이를 발표하며, 축제와 공연으로 활동의 성공을 축하하는 과정은, 일 년 동안의 문헌정보전공의 활동 성과를 인정받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2017년의 문정인의 밤은 문화부의 축소로 아쉽게 공연이 빠졌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으리라.



우리 선배님, 멘토를 만나다

기사: 16강석진 | 편집: 16오민석



우리 선배님, 멘토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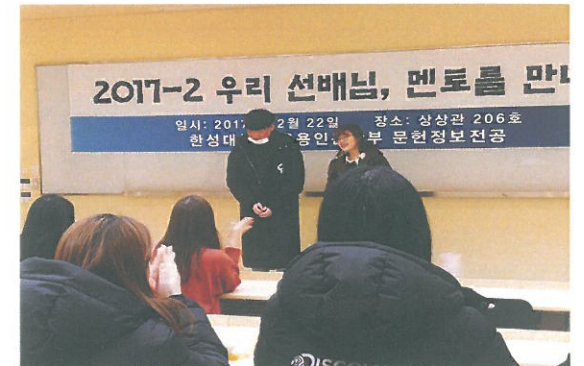
‘사서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문헌정보학(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을 다루는 학생들이라면 심심찮게 들어본 직한 단어일 것이다. 사서 공무원은 국공립도서관 등의 기관에서 사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9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으로 채용 시험이 나뉘어 있다.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4년제 대학 문헌정보학과 졸업) 도서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라면, 7급 공무원 시험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합격률 25%의 영광스러운 직장. 그 열린 미래로 도약하는 5명의 사서 공무원 합격자 선배가 한성대학교를 찾았다. 지난 12월 13일, 한성대학교 재학생들에게 한 통의 문자메시지가 날라 왔다. 12월 22에 있을 선배와의 간담회의 수요조사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수요조사는 참여 희망자의 학번과 이름을 기재하는 것으로 쉽고 간단하게 처리되었다. 2017년 12월 22일, 간담회 수요조사 메시지를 받은 뒤 9일 후, 오후 5시 상상관 206호에서 ‘우리 선배님, 멘토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기다리던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간담회는 화목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공무원 시험에 관한 설명이나 팁부터 시작하여, 도서관 근무자로서의 생활과 업무, 문헌정보학과를 전공하면서 겪어온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사서 공무원 합격자 선배들의 다양한 이야기보따리가 현장에서 풀어져 나갔다.

간담회가 끝난 후

간담회가 끝난 후, 뒤풀이로 간담회 참석자와 사서 공무원 합격자 선배들과의 저녁 식사가 진행되었다. 식사는 선배들의 이야기와 팁을 간담회보다 개인적이고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진로, 취업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간담회를 포함하여 다양한 행사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이는, 사회로 나가면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힘들뿐더러 많은 금액도 치러야 하는 값진 기회들이다. 학과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한다면, 보람차고 유익한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신입생 OT (Orientation)

기사: 16강석진 | 편집: 16오민석



학교에 발을 들이다

02월 23일, 한성대학교 상상관 지하 2층에서 신입생 OT가 치러졌다. OT의 주제는 각 트랙의 설명이었다. 한성대학교는 트랙제를 도입하여, 타 대학과 수강 방식이 상이하다. OT의 참여는, 신입생의 앞으로의 학업을 계획하는 것에 필수적인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OT는 각 학부, 각 트랙이 부스를 설치하여, 그 중 원하는 트랙의 설명을 학생들이 들으러 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이 관심을 안 가질까 걱정했지만..

OT가 시작되고, 대부분의 학생이 인기가 많은 몇몇 부스에 몰리기 시작했다. 문헌정보전공의 두 트랙은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 필자가 홍보를 위해 이리저리 건네준 팸플렛만

하여도 족히 50장은 넘었을 것이다. 홍보 덕이었을까? 다행히 OT의 중반에 접어들면서, 두 트랙에 신입생이 관심을 주기 시작했고, 문헌정보전공의 신입생 OT는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성공하였다.

도서관정보문화와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이란?

도서관정보문화와 디지털인문정보학 트랙은, 15학번 기준으로 이전에는 지식정보학부(Knowledge Information Science)에서 이후에는 응용인문학부의 문헌정보전공(Library Information Science)에서 파생된 두 개의 트랙이다. 이 두 트랙은 어떤 가치가 있고 무엇을 가르칠까?

도서관정보문화트랙 (구 정보문화트랙)

도서관정보문화트랙은 지식정보 및 데이터 산업의 발달로 인한 정보전문가(사서, 정보분석가, 정보컨설턴트, 데이터 분석전문가 등)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가에 따라,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의 필요한 제반 지식을 바탕으로, 정보자료의 수집, 조직, 검색, 활용을 수행할 수 있는 사서 및 정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트랙이다. 교육 내용은 도서관과 정보관리에 관한 핵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의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수강신청처 중 도서관정보문화트랙 소개에서 발췌)

도서관정보문화트랙에서는 1학년 수업으로 1, 2학기 '도서관과 정보'를, 2학년 수업으로 1학기 '정보학의 이해', '어린이 청소년 서비스', '정보자료의 분류'를, 2학기 '정보자료의 기술과 접근', '기록관리의 이해', '정보검색론'에 대한 강의를 한다. (2018년 기준)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구 라키비움비즈니스트랙)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은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획, 선별, 구조화, 서비스 등의 디지털 큐레이션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자, 이를 위해 인문학에 디지털기술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를 기획, 축적,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디지털 큐레이터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 내용은 정보기술과 콘텐츠 관리, 유통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인문지식데이터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서비스하는 현장 적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에서는 1학년 수업으로 1, 2학기 '디지털 휴머니티의 이해'를, 2학년 수업으로 1학기 '인문정보 콘텐츠', '지리정보시스템의 이해', '정보자료의 분류'를, 2학기 '지식의 공유', '소셜데이터의 이해', '기록관리의 이해', '정보검색론'에 대한 강의를 한다. (2018년 기준)

마치며

도서관정보문화와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은 상당히 매력적인 전공이다. 교수님들도 모두 친절하시며, 학생들의 복지 또한 크게 신경 쓰고 있으며, 교수장학금, 선배 장학금 등 학과 내에 다양한 장학금도 존재한다. 또한 문헌정보전공은 한성대학교 인문계열 정공 중에서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장하고 있다. 수업도, 교수님도, 복지도 만족스러운 문헌정보전공이 더욱 번창하길 바란다.

새내기 배움터

기사: 16강석진 | 편집: 16오민석



한성대의 신입생이 모이다

짧게는 고등학교 3년, 길게는 초·중·고 12년의 혹독한 과정을 수료하고, 치열한 경쟁 끝에 서울행 티켓을 손에 쥔 자들. 아직 고등학생의 티 조차 채 벗지 못한 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날이 있다. 바로, 새내기 배움터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대학 시작을 돕기 위해 새내기 배움터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을 받고도 이를 무시할 수 있는 신입생이 얼마나 있을까? 대부분의 신입생이 참가하는 그릴싸하고 커다란 첫 대학 행사! 신입생들은 제각각 기대와 자랑스러움, 긴장감, 비장함 등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고조되는 긴장감과 기대감을 애써 떨쳐내며 도착한 잠실 종합 운동장. 그 입구에 선 신입생은 한 가지 난관에 봉착한다. 바로, 길게 이어진 사람의 행렬이다. 아직 외우지도 못한 학과의 이름을 핸드폰에서 뒤적이며 이리저리 자신의 위치를 찾아나서는 과정은, 특히나 내성적인 사람에겐 더더욱 고난으로 다가온다. 아니나 다를까, 제 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신입생은 학과마다 한 두 명씩 존재한다. 이들을 인솔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선배들을 보는 것도 꽤나 재미있는 구경거리 중 하나다.

첫째 날

신입생들이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대명비발디파크’. 평방 2km 정도의 부지에, 숙소 및 각종 레저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리조트로, 한성대학교에선 숙소와 연회장, 식당을 이용하였다. 1일차의 일정은 간단하다. 학생들의 긴장과 피곤을 풀어주기 위해 중간 휴식이 많기 때문이다. 점심식사를 끝 마치고, 개회식 및 안전교육이 행사의 시작을 장식했다. 개회식에서의 교육과 중앙기구 소개가 끝난 후 학생들의 숙소가 배정되었고, 저녁식사후 동아리들의 공연으로 하루 일과가 마무리 되었다. 느슨한 일정에 잤은 휴식이 있었지만, 긴장감에 피로해진 때문인지, 잠을 자지 않고 버텨보겠다면 신입생들은 자리에 누운지 얼마 안 되어 꿈나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



둘째 날

첫째 날이 긴장과 피로를 푸는 맛보기였다면, 둘째 날은 본격적으로 새내기 배움터의 활동을 시작하는 역동적인 날이다. 아침 8시에 일어나 아침식사를 하고, 바로 단과행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분위기를 띄우는 간단한 퀴즈와 게임부터 시작해, 스피드 게임, 옷 많이 꺼입기, 장애물 경주 등, 신입생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팀 경기가 이루어졌다. 그중 최고 묘미는 모든 자존심을 내던져놓은 막춤 대결이었다 호연할 수 있다.

신입생들이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몸을 풀었으면, 응원전을 교육받는다. 응원전이란 대학 대항으로 치러지는 대학의 응원 점수로 순서를 매기는, 새내기 배움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큰 행사다. 신입생들이 응원전 준비를 끝마치고 저녁식사를 하면, 이제 행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동아리와 학생들의 장기자랑, 그리고 그 사이에 펼쳐지는 신입생들의 응원전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룬다. 멋진 춤이 단상위를 수 놓으면, 노래에 맞춘 비장한 응원소리가 강당을 채워놓는다. 수백명이 하나가 되어 파도타기를 하고, 응원을 하는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쉬어버린다.

신입생들은 장기자랑과 공연이 끝난 후 각자의 숙소로 돌아간다. 숙소에선 응원전의 상품과 간식, 그리고 서로 친해지기 시작한 신입생들의 이야기로 제 2의 행사가 시작되어, 밤 늦게까지 이어진다.





돌아가는 길

새벽 늦게까지 놀다가 잠들었기에, 신입생들의 아침은 비몽사몽하기만 하다.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좀비의 몸짓을 연상시키며, 신입생들은 집에갈 채비를 한다. 하지만 인솔을 맡은 선배들은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인원과 물건 확인을 한다. 신입생들을 인솔하느라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보람찬 일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신입생들의 마음엔 은은한 후련함과 자신감이 생긴다. 그곳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어리바리한 신입생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학생활을 잘 해내자라며 다짐하는 자랑스러운 대학생이다.



연합 MT (Membership Training)

기사: 16강석진 | 편집: 16오민석



상봉역에서 출발!

즐겁고 소중한 토요일을 반납하고 향한 상봉역. 집합 시간은 11시 30분으로 여유로웠지만, 수도권 반대에 위치한 역이기에 출발 시각은 넉넉하지 못했다. 부스스한 몸을 이끌고 출발했기 때문일까? 필자는 깜박 졸다가 역을 4개나 지나치고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상봉역에 도착하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학생이 보였다. 이곳저곳에 수십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모여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문헌정보전공에 몸을 담은 학생이 많았다니!'라는 생각이 순간 머리에 스쳤지만, 사실은 여러 대학교의 MT 날짜가 겹치는 것일 뿐이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집합장소가 급하게 변경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문헌정보전공 일동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 MT의 첫

발자국을 찍을 수 있었다.

장보기

연합 MT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장보기". 각 조에 3만 원의 경비가 주어졌고, 조원들은 각자 먹고 싶은 과자, 음료수, 냉동식품 등을 한 아름 샀다.

한껏 짐이 늘어난 문헌정보전공 일동은 장보기를 마친 후에야 드디어 목적지인 청평으로 향할 수 있었다.

레크리에이션

MT의 꽃, 레크리에이션! 연합 MT의 레크리에이션은 피구대회로 본격적인 막을 열었다. 피구는 숙소 앞에 위치한

운동장에서 이루어졌다. 피구에 참가한 팀은 총 8개로, 2팀씩 승부를 겨루는 토너먼트와, 왕을 지키며 적 왕을 탈락시켜야 하는 왕피구가 진행되었다.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면 평범하고 즐거운 놀이이지만, 활동적인 경기는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 거기에 약간의 경품으로 승리욕이 더해지면, 그 위험은 더욱 증가한다. 그것은 MT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몇 번의 넘어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니었기에, 피구는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전의 피구는 그야말로 전초전. 레크리에이션의 경품으로 걸린 맛있는 음식들을 타기 위해선, 피구대회와 퀴즈, 응원전의 성적을 모두 우수하게 받아야 했다. 피구대회의 뒤처리와 잠깐의 휴식을 끝마치고, 레크리에이션은 중반부인 퀴즈에 접어들었다.

문제의 답을 가리고 몸으로 설명하는 '속담 풀이 몸으로 말해요'. 'ㅂ, ㄹ, ㅋ, ㄴ' 따위의 4개의 초성을 주고, 4명의 조원이 초성에 일치하는 단어를 연속으로 말해야 하는 '스피드 초성 퀴즈' 등의 재미있는 게임을 치렀다. 그런데, 퀴즈 내내 출제자인 학생회장을 곤란하게 하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퀴즈를 내자마자 손을 들어 순서를 계속해서 가져간 4조가 그 원인이었다. 4조를 무시하기 위해 노력하던 학생회장은 그야말로 고양이 앞의 쥐 같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설렘 했던 학생회장의 개그와 함께했던 레크리에이션은 퀴즈와 응원전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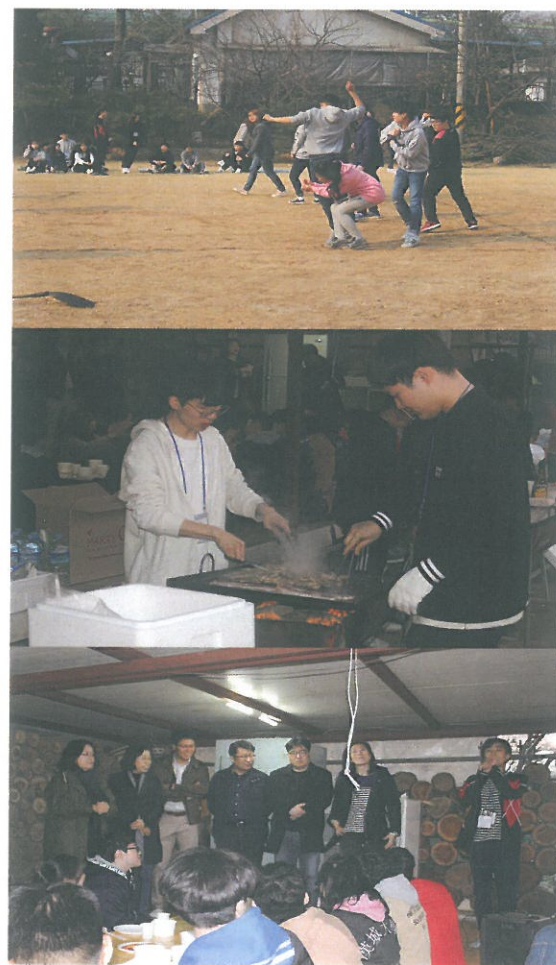
교수님과의 식사

저녁에는 교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간단한 교수님들의 자기소개 후에 저녁 만찬이 시작되었다. 저녁 식사는 테이블을 길게 이어서 교수님과 학생들을 섞어 진행되었는데,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교수님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교수님들은 학교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교수님들은 학교와 학과의 이야기 말고도, 다양한 인생 경험, 취미활동 같은 이야기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해주셨다.

저녁 식사에서의 인기메뉴는 의외로 김치가 차지했다. 김치를 한 아름 하는 큰 통에 챙겨왔음에도, 너무 맛있어서 30분 만에 동이나 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져 버렸다.

50명이 함께한 저녁 식사. 학생들이 주인공인 이 식사의 뒤에는, 열심히 음식과 물건을 나르고, 채소를 씻고, 밥을 짓고, 고기를 구운 학생회와 조교들의 봉사가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뒤풀이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숙소에서는 뒤풀이가 진행되었다. 레크리에이션의 상품이었던 양주와 각종 고급 과자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숙소의 1층은 일명 '시체 방'으로, 술을 마시지 않거나, 마시는 걸 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사용되었고, 2층은 술을 마시며 뒤풀이를 즐기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필자는 조용히 술을 마시는 걸 즐기는 성격이기에, 1층에서 요리를 만들어 나르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

학생회 임원들의 노력 덕에 다행히 뒤풀이에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한가지 해프닝이 있었는데, 교수님들 중 한 분이 캠프파이어를 하고 싶다고 강하게 요청하신 것이다. 안전 대비나 여러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말리는 학생회장의 간곡한 설득이 있었고, 다음 MT에서 그 교수님이 통기타를 가져와 모닥불 아래에서 노래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되었다. 이 약속이 지켜질지는 다음 MT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귀가

청평역에서 집으로 향하는 길은, 즐거움을 뒤로 보내고 나아가야 하는 약간의 쓸쓸함이 느껴졌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다행히 MT는 큰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끝을 맺었다고 생각한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자가 잠도 한 시간밖에 자지 못했다는 건 비밀이다. 아무튼, 이 정도면 즐거운 MT였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엠티도 즐거운 분위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대통령기록관(학술답사1)

기사: 16강석진 | 편집: 16오민석



대통령기록관을 가다

1948년 8월 15일, 5·10 총 선거로 한반도는 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출범을 선포 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3·15 부정선거, 군부 독재, 광주 민주화 항쟁, IMF 외환 위기 등의 크나큰 고난을 여럿 겪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에 쓰러지지 않고, 국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탈하였으며, OECD에 가입하여 선진국들과 당당히 어깨를 맞대는 등의, 민주·경제적인 성공을 이끌어 냈다. 이와 같은 역사는 한국이 성장의 고통을 감내하며 얻어낸 값진 교훈이다.

우리는 윈스턴 처칠이 남긴 유명한 명언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즉, “역사를 잊은 국가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이 말을 가슴 속에 굳게 품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같은 부끄러운 과거를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말이다.

이러한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관하여 먼 미래의 후손과 나아가, 그 후손의 후손들에게 전해주려는 기관이 있다. 바로 대통령 기록관이다.

도착

한성대학교에서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까지의 거리는 차로 약 2시간 30분 정도이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소소한 대화나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것으로 보내고, 드디어 문헌정보학과 일동은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에 도착했다.

세종시의 경관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끝없이 이어진 공원들과 그 사이사이에 있는 거대한 책, 큐브 같이 특색있는 모양의 건물들이,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듯한 장관을 자아냈다.

1층

대통령 기록관에 입장한 학생들을 반긴 것은 검정색 고급 세단이었다. 로비에 당당히 전시되어있는 세단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대통령 공식행사에 사용되었다가 은퇴한 의전 차량이라는 가이드의 설명이 덧붙여졌다.

로비에서 세단을 바라보고 좌측, 대통령의 전당이라고 쓰여있는 입구 안쪽에서 이제껏 본 적 없는 신기한 전시물이 학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곳에는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가 전시되어있었는데, 여러 층으로 되어있는 유리에 인쇄된 글자들이 겹겹이 쌓여 대통령의 얼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글자들은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추출한 핵심단어들로 구성되어있었다.

2층

2층은 휴게시설로 이루어져 있었다. 학생들은 휴식공간에 비치된 태블릿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검색하거나, 기념품 가게에서 다양한 기념품을 구입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아키비스트가 되어보는 체험 게임이나, 대통령 기록관의 프로세스를 소개하는 공간, 대통령과 시민이 함께한 사진이 전시되어있는 공간을 지나, 대통령 기록관 체험을 끝마쳤다.

3층

3층은 다양한 체험 공간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대통령의 집무실을 재현한 공간에선, 포켓몬GO처럼 AR화면에 있는 오바마 대통령과 같이 사진을 찍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상 결제를 체험하였다. 그 외에도, 학생들은 역대 대통령의 연설을 체험하는 춘추관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체험하거나 대통령 선물 기록관을 구경하였다.

4층

4층은 통로를 따라 이어지는 대통령제의 변천과정을 지나 끝에 다다르면,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절대군주제 등 다양한 세계의 정부 형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터치스크린이 나오고, 그 오른쪽에 위치한 입구로 들어가면 전시관이 모습을 드러낸다. 전시관의 한쪽엔 투명하고 네모난 형태의 RFID카드들이 꽃혀있는 탁상이 위치해 있었다. RFID카드를 가장 맨 밑의 구멍에 꽂아넣으면, 해당하는 대통령의 주요 영상이 한쪽 벽에 상영되는 구조였다. 그 밖에도 전시관엔 역대 대통령의 정상외교 활동에 관한 문서, 외교사진, 대통령의 선거 포스터와 유세 장면 등이 전시 되어 있었다. 그 중 학생들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한 것은 선거용 포스터 촬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모니터를 통해 사진을 촬영하면, 포스터로 가공된 사진이 인쇄됨과 함께, 해당 포스터가 길다란 벽면을 통해 상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시관의 안쪽으로 들어가면, 대통령의 취임식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학생들이 단상에 부착된 터치스크린을 통해 대통령 취임식에 대하여 학습하고, 대통령 선서문을 낭독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대통령기록관을 떠나며

국새 보관함을 본뜬 거대한 큐브모양의 건물, 대통령 기록관. 학생들의 예상을 아득히 넘나드는 재밌었고 참신한 질 좋은 전시물들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영감이 되었다. 학생들에게 이번 학술답사가, 단순히 걸 구성만 챙기는 연례행사가 아닌, 민주주의의 역사가 담긴 기록물을 보존하는, 미래의 직업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청주 고인쇄 박물관(학술답사2)

기사: 16강석진 | 편집: 16오민석



청주 고인쇄 박물관에 가다

세 계 에 서 가 장 오 래 된 금 속 활 자 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 흔히 사람들이 간략하게 직지심체요절이나, 직지심체요절 등으로 부르는 한국의 자량이다. 청주 고인쇄 박물관에는 직지심체요절과 금속활자에 대한 전시품들이 진열되어있다.

학생들이 청주 고인쇄 박물관의 입구로 들어섰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직지심체요절의 금속활자 인판 78장을 복원하여 전시한 전시물이었다.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책모양으로 펼쳐져 있는 인판들은 단순히 모양만 복제한 것이 아닌, 옛 방식 그대로 주조한 것이었다. 직지심체요절 상·하권의 내용이 전부 수록되어있는 인판은 총 3만여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직지심체요절의 인판은 밀주조법이라는 전통

주조기법을 통해 제조되었는데, 이는 밀랍으로 모형을 만든 후, 진으로 감싸 밀랍을 녹인 뒤, 그 빈자리를 금속으로 채워서 형태를 만드는 주조기법이다.

가이드는 먼저 학생들에게 청주 고인쇄 박물관의 연혁과 직지심체요절에 대한 설명이 담긴 교육 영상을 시청시켜 주었다. 직지와 인쇄술에 대한 전시물을 관람하기 전에 이들에 대한 지식을 익힌 후 관람하라는 취지였다.

영상시청과 교육이 끝난 후 본격적인 박물관 관람을 시작하자, 금속활자를 만드는 장면의 모형이 눈길을 끌었다. 주조할 글씨체를 선정하고, 밀랍으로 글자를 깎아 나무 형태로 연결하고, 흙으로 감싸 굳히고, 쇠물을 부어 밀랍을 녹이며, 만들어진 활자를 다듬어서 완성하고, 조판, 인쇄하기 까지의 과정이 빠짐없이 구현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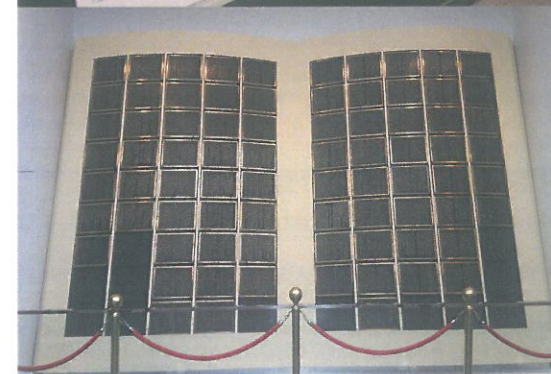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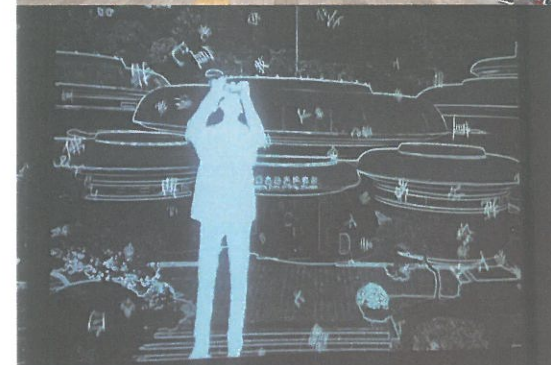
더 나아가자, 직지심체요절뿐만 아니라 오륜행실 같은 또다른 활자 인쇄본과 활자판이나, 무구정광대다라니경 같은 목판본 등의 전시물이 등장했다. 한쪽 벽엔 세계와 한국의 인쇄 기술의 연표가 나열되어있어, 한국 인쇄기술의 대담함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책이나 활자가 전시되어있어, 금속활자 혹은 목판본에 관한 다양한 형태와 이야기들을 볼 수 있었다.

2층의 전시관에는 서양 최초 금속활자 인쇄본인 “42행 성서”와 그에 관련한 각종 전시물들이 있다. 42행 성서는, 독일 출신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고안한 인쇄술로 만들어진 성서로, 유럽은 물론 아울러 전 세계의 인쇄술의 폭발적인 발전을 이뤘던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중요성은, 직지심체요절 같은 활자판의 주조과정이 아닌, 프레스기를 이용한 정확하고 빠른 대량생산에 있다. 프레스기를 이용한 기계공정으로 인쇄술이 폭발적으로 발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청주 고인쇄 박물관엔 단순한 모형과 책, 활자 들만 전시되어있는 건 아니었다. 금속 활자를 이용한 각종 예술 작품이나, 직지와 박물관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가상의 공간을 걷는 재미있는 전시물도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학생들의 박물관 관람이 끝난 후, 다같이 박물관 앞에 모여 사진을 찍었다. 직지심체요절과 금속활자를 통해 문헌정보학과의 추억이 또 하나 만들어진 순간이었다.

청주 고인쇄 박물관은 우리의 역사적인 기술을 복원하고 보존하려 노력하고 있다. 금속활자 기술은 지금의 시선으로 본다면, 상당히 낙후된 기술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인쇄기술 뿐 아니라, 주조, 모형 기술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과거의 기술은 미래의 영감으로도 재활용 할 수 있다. 청주 고인쇄 박물관의 이런 노력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스승의 날

기사: 16강석진 | 편집: 16오민석



스승의 날이 되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초등학교 때 만들던 카네이션? 고등학교 시절의 은사? 사실, 나이가 들수록 스승의 날을 챙기는 사람은 점점 줄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새로운 개념이 생기는 법이니, 스승의 날에 소홀해 지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단언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날을 아직까지 꾸준히 챙기는 자들이 있다. 바로, 문헌정보전공 학생회 일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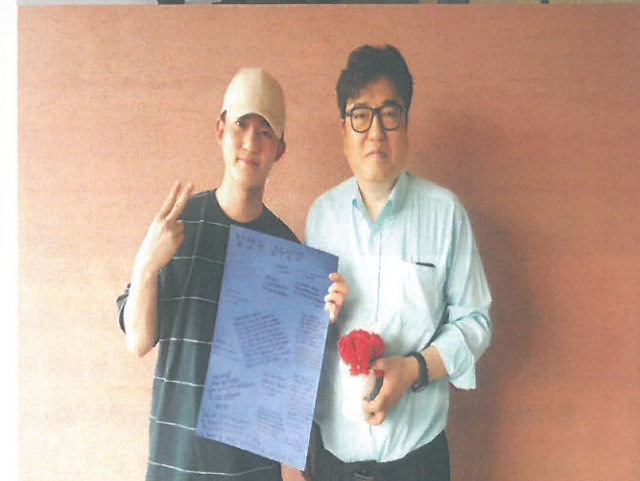
학생회가 교수님을 찾아뵙다

문헌정보전공 학생회는 회장단, 총무, 기획부, 도활부, 문화부, 선전부, 편집부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서마다 교수님을 정하고 부원들끼리 모여서 롤링페이퍼와 카네이션을 만든다. 롤링페이퍼에는 평소 교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감사의 마음

등을 정성스럽게 적고 예쁘게 꾸민다. 카네이션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다하여 모든 준비를 마치면, 교수님이 계신 연구동에 깜짝 방문을 한다.

스승의 날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일정을 보내시고 계신다. 소소한 롤링페이퍼와 카네이션이지만, 학생들의 정성이 담긴 선물은, 분명 그 바쁜 일상에 커다란 활력소가 되리라. 선물 증정을 끝마치면, 기념사진을 찍고 교수님과 간단한 담소를 나눈다.

커다랗거나 화려한 행사는 아닐지라도, 이 소소한 행사는 작지만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학생들에게겐 보람을, 교수님에게겐 기쁨을 주는 스승의 날 행사가 앞으로도 꼭 전통으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



2018 대동제

기사: 16강석진 | 편집: 16오민석



대동제의 날이 다가오다

2018년 5월 23일(수)부터 25일(금)까지, 사흘 동안 한성대학교의 간판 축제인 대동제가 밤을 밝혔다. 올해는 그동안의 축제와 다르게 축제 시작 전부터 걱정의 목소리가 컸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주류판매 관련 법령 준수를 지켜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주세법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의 제1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제8조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주류판매를 담당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면허를 받아야 한다. 축제에 잠깐 등장하는 동아리와 학과 주점이 이 기준을 만족할 리는 만무했던 것이다. 술이 사라진 축제라니! 학생들은 축제에서 술을 못 마시게 되는 걸까 걱정하였고, 축제 부스

참가자는 판매 메뉴를 뜯어고치기 위하여 머리를 싸매야 했다.

무사히 첫 시작을 끝다

5월 23일, 대동제가 막을 열었다. 23일은 대동제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며, 주점 없는 축제가 시험대에 오르는 날이기도 했다. 많은 걱정을 받으며 시작된 대동제였지만, 다행히 축제는 호황을 이뤘다. 축제 부스들은 그동안 술판매에 치중하던 행태에서 탈피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음식들을 판매했다. 음주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었기에, 술이 아쉬운 학생들은 편의점이나 술집에서 술을 사오기도 하였다.

축제의 본격적인 시작은 MC의 멘트로 시작되었다. 개회사와 MC의 분위기를 띄우는 멘트가 끝나자 동아리 공연이

시작되었다. 동아리 공연으로는 민족예술연구회 ‘탈패’의 멋진 탈춤과 민중가요 동아리 ‘들불’의 무대가 이어졌다.

대동제에서는 단순한 공연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당일 14시 미래관 DLC에선 배우 강철민의 강연도 이루어졌다. 미래관 앞 부스에선 3일간 진행되는 사회봉사단과 총학생회의 기부바자회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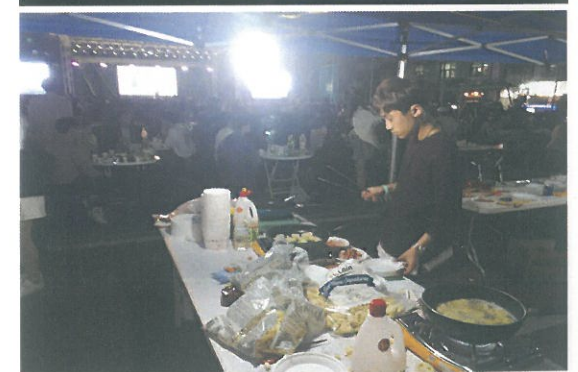
가수들이 참여하다

24일부터는 가수들의 공연도 시작되었다. 윤판판, 10cm가 대동제에 참여하여 뜨거운 무대를 보여주었다. 동아리 공연도 만만치 않았다. 중앙댄스동아리 ‘NOD’, 흑인음악동아리 ‘TRIAX-4000’가 프로 못지않은 멋진 무대를 보여주었다. 같은 날 14시 미래관 DLC에선 학생 역량 프로그램 성공사례 발표회가 있었다.

무사히 축제를 마친다

25일.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 가수는 ZICO, 거미와 거미였다. 두 가수는 높은 역량의 무대를 통해 대동제의 마지막 밤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해주었다. 동아리는 밴드동아리 ‘왕산악’과 오케스트라 동아리 ‘MGOP’가 훌륭하고 웅장한 무대를 펼쳐주었다. 축제의 마지막 날까지 진행되었던 기부바자회도 성황리에 끝을 맺었다.

올해 대동제는 주점이 없는 축제의 첫 시작으로, 축제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기념적인 축제였다.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다행히 축제는 무사히 끝났다. 비록 술은 없더라도, 더 좋은 공연과 질 높은 부스 운영으로 축제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걸 입증한 것이다. 앞으로도 주점에 의지하지 않고, 축제 자체의 강점으로 승부 할 수 있는 대동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과거와 현재가 만난 도서관, 청운문학도서관

기사: 17윤대원 | 검수: 16강석진 | 편집: 16오민석



차분히 즐기는 여가시간

요즘은 일자리나 학업생활을 하면서 지친 몸을 쉴 수 있도록 휴식 문화가 개선되면서, 다양한 여가활동들이 생겨나고 있다. 최근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차분하게 즐기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중에는 도서관이나 미술관을 휴식지로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기존에 알고 있던 평범한 도서관보다는, 기존의 것에 독특함을 더한 이색 도서관이 인기를 끄는 중이다. 단순히 도서관이 책을 읽는 장소만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서 교양을 기르고 사람들과 접하면서 대인관계를 만들어가는 장소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색 도서관 중 하나인, 한옥으로 구성된 청운문학도서관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한다.

한옥으로 이루어진 이색도서관, 청운문학도서관

청운문학도서관은 한옥으로 지어진 종로구 16번째 도서관으로, 독서와 사색, 휴식이 가능하고 시·소설·수필 위주의 다양한 문학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각종 독서모임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내 문학 작품 및 작가 중심의 기획전시와 인문학 강연, 시 창작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청운까치서당', 1박 2일 독서캠프' 등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독서·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청운문학도서관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36길 40에 있으며 광화문역 2번 출구와 경복궁역 3번 출구에서 1711번 버스를 타고 경기상고에서 내려 언덕길을 5~6분 정도 걸거나 7212번, 1020번, 7022번 버스를 이용해 이자하문고개,

운동주문학관에서 하차 후 도보로 5분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다. 청운문학도서관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에는 휴관을 하고 화~일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한다. 회원가입을 통해 회원증을 무료로 발급받아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한 번에 3권을 빌릴 수 있고 10일의 대여기간이 있다. 또한, 1회 연장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비도서 자료는 7일의 대여기간이 있다. 일부 도서는 대출이 제한되고 연체일수만큼의 대출 불가와 반납자료를 당일 재대출 할 수 없다.

청운문학도서관은 지하와 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지하에는 시원하고 쾌적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이 있는데, 2017년 1월 기준으로 총 13,827권의 장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문학과 관련된 책들이 많았다.

다양한 매력이 있는 도서관

책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밌는 콘텐츠도 있는데, 도서관 입구에 오늘의 시 읽기라고 하여, 향아리에 담겨있는 두루마리 종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놓았다. 도서관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뽐기라는 콘텐츠를 도서와 연관 지어 만드니, 입구에서부터 흥미를 주어, 책을 읽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더해 자신이 알고 있던 시가 나온다면 배웠던 기억들을 회상해 기분 좋게 책을 읽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열람실에는 어린이열람실과 다목적실이 있다. 간혹 도서관들을 보면 어린이열람실은 구색을 갖추기 위한 볼품없는 장소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청운문학도서관에 있는 어린이 열람실은 공을 들인 흔적이 엿보인다. 바닥에 구멍을 파 다리를 내려놓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독특하면서도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껴 책에 집중도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청운문학도서관엔 책을 읽는 열람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실이란 곳이 있다. 열람실에서는 분위기가 조용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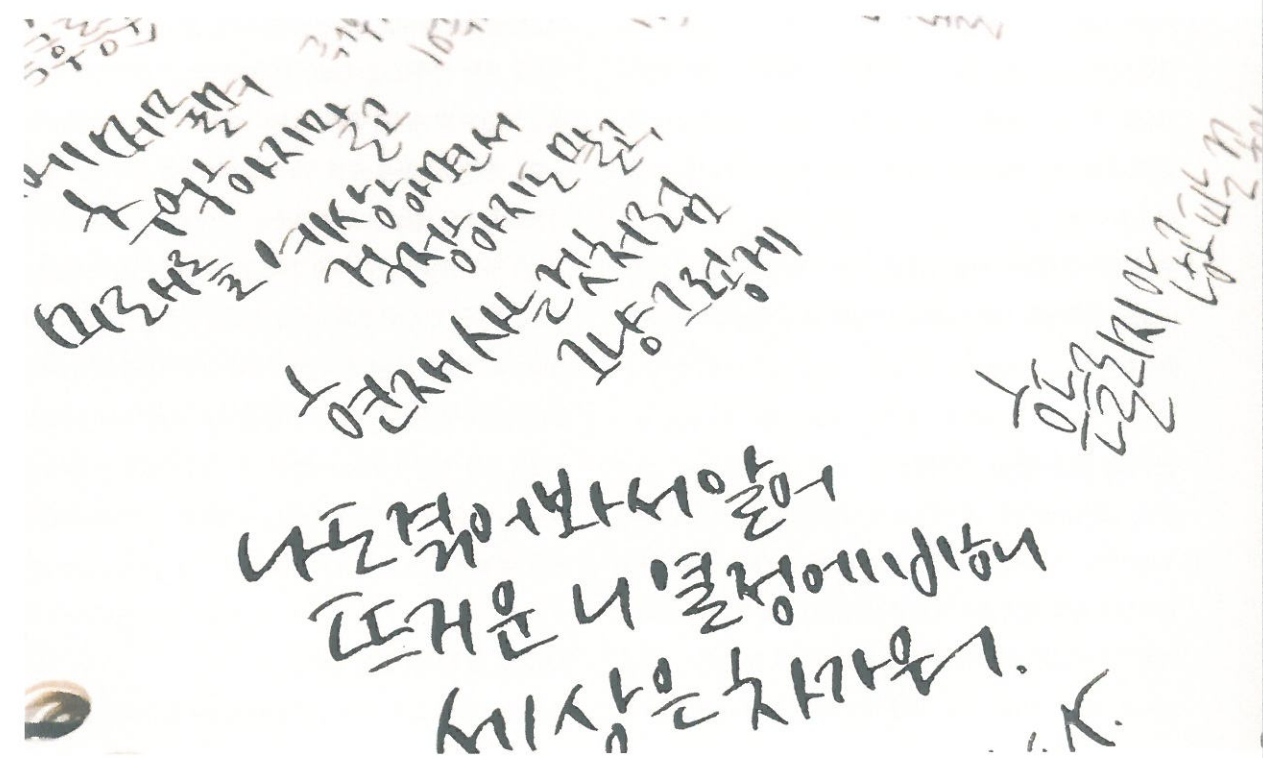
글씨 쓰는 소리조차 민폐가 될까 신경을 쓰게 되지만, 다목적실에서는 조용한 데서 하고 싶었던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각각 도서관마다 추천도서가 있는데 청운문학도서관의 추천도서는 추천이유가 특별해서 인상이 깊었다. 보통 책을 추천할 때는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추천 동기를 밝게 쓰지만, 청운문학도서관의 추천도서는 다른 도서관과 같은 동기들도 있었지만, 결혼가정에서 아이가 어떤 감정을 하고 있을지 등 무거운 주제를 담은 이야기도 아이들을 위해 추천을 해놓았다는 점에서 한 수 앞을 더 바라봤다고 생각했다. 이 밖에도 지하는 열람실 앞에 카페가 있어 음료를 마시면서 쉴 수도 있고, 열람실 바로 옆에는 재능기부라고 하여 다른 사람이 그렸던 작품들을 걸어두어 감상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작은 시간들이 모여 큰 가치가 되다

글: 17윤대원 | 검수: 16강석진 | 편집: 16오민석



일상에 지친 학생들

대학생들은 학기 중에는 학업으로, 방학 중에는 학비를 벌기위한 아르바이트로 바쁜 일상을 보내야 한다. 고된 생활 속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여행을 떠나거나, 다양한 경험을 해보려는 대학생들도 있다. 하지만, 힘든 몸을 쉬게하기 위해 집에서 온종일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거나 유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몇몇 취미활동을 소개해보려고 한다.

나의 추억

가끔 학업을 하다보면 공부가 지치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필자는 그럴때면 잠시 머리를 쉬게 하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어 글씨와 관련된 놀이를 하곤했다. 같은 글자를 다양한

글씨체로도 써보기도 하고, 단어를 썼을 때 어떤 글자가 가장 예쁘게 쓰였는지 비교하는 형식으로 많이 장난쳤었다. 부모님께서는 '글씨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다'며 꾸중을 하실 때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필자의 추억을 살리면서 캘리그래피라는 취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캘리그래피란?

캘리그래피(Calligraphy)란 '손으로 그린 문자'라는 뜻이나, 조형상으로는 의미전달의 수단이라는 문자의 본뜻을 떠나 유연하고 동적인 선, 글자 자체의 독특한 번짐, 살짝 스쳐가는 효과, 여백의 균형미등 순수 조형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뜻한다.

서예(書藝)가 영어로 캘리그래피(Calligraphy)라 번역되기도

외관도 아름다운 도서관

청운문학도서관은 앞서 말했듯이 지하와 지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하가 도서에 초점이 되어있다면 지상은 아름다운 풍경이 초점이 되어있다.

지상은 한옥으로 구성되어 있어 옛날 모습을 통해 향수를 맡아볼 수 있다. 지상에서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진행되는데, 도서관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체험이 끝난 사람들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도서관에서 쉬면서 책을 읽는 경우가 많다. 또한, 체험뿐만 아니라 산이랑 근접해 있어서, 아름다워 사진을 찍어 추억을 남기기에에도 적합한 장소이다.

마치며

청운문학도서관은 과거의 한옥과 지금의 도서관이 결합한 이색 도서관이다. 최근에는 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읽는 장소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이색 도서관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추세다. 도서관에 독특함이 더해져, 딱딱했던 책 읽기가 한층 흥미로워지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다양한 측면으로 쌓을 수 있게 되었다. 청운문학도서관은 한 번 경험하면 여러 번 찾게 되는 장소다. 방학 때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청운문학도서관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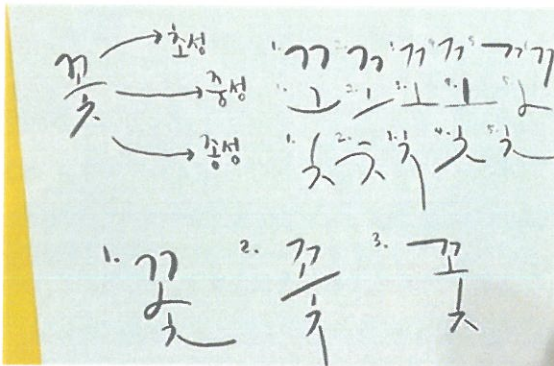
하는데, 원래 calligraphy는 아름다운 서체란 뜻을 지닌 그리스어 Kalligraphia에서 유래된 전문적인 핸드레터링 기술을 뜻한다. 이 중에서 캘리그래피(calligraphy)의 Calli는 미(美)를 뜻하며, Graphy는 화풍, 서풍, 서법, 기록법의 의미를 갖고 있다.

즉, 개성적인 표현과 우연성이 중시되는 캘리그래피(Calligraphy)는 기계적인 표현이 아닌 손으로 쓴 아름답고 개성있는 글자체이다.

글자의 미술 캘리그래피

우선 캘리그래피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한데, 초보자하는 모나미 붓펜과 드로잉 노트 또는 A4용지를 준비하면 된다. 펜과 종이의 종류는 많지만 연습이 많이 필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정도 준비물이면 충분하다.

멋지고 예쁜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곧바로 멋드러진 단어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모음, 자음들의 초성을 하나씩 나누어서 여러 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연습하다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면서 서서히 실력이 늘어난다. 독학이 힘든 사람들은 문방구에 가서 캘리그래피연습집을 사거나 플랫폼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참고해가면서 연습을 하면 충분히 실력을 쌓을 수 있다. 한글문서로 글을 써보았다면 글씨체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있을 것이다.



이 사진은 '꽃'이라는 단어를 초성, 중성, 종성 단위로 나누어, 조합을 통해 맞추는 방식으로 '꽃'을 만드는 과정을 담고 있다. 동근 느낌의 초성이면 중성, 종성도 동근 느낌으로, 날카로운 느낌의 초성이면 중성, 종성의 느낌을 날카롭게 하거나, 초성이 왼쪽으로 길면 종성은 오른쪽으로 길게 하는 등, 느낌이나 형태를 퍼즐처럼 맞추어 다양한 느낌의 글씨를 만들 수 있다. 연습을 하다보면 다양한 글씨체를 만나볼 수 있고, 그 글씨체를 통해서 자신만의 글씨체를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캘리그래피는 연습을 꾸준히 해서 한 번 숙달이 된다면 창의적이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히 혼자서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상으로 제작과정을 찍어서 새로운 콘텐츠로 활용할 수도 있다.

새로운 극한에 도전하라!

최근 들어 부쩍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스포츠가 있다. 강력한 도전정신을 통해 만들어진 익스트림스포츠라는 것이다.

익스트림스포츠란 'X게임'이라는 약칭으로도 통용되는데, 영어 'extreme(극한)'에서 'X'를 딴 것이다. 신체 부상, 심지어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갖가지 묘기를 펼치는 레저 스포츠로 1970~1980년대 미국 대도시에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젊은 세대들의 도전정신이 잘 반영되어 있는 운동으로 '위험스포츠', '극한스포츠'라고도 한다.

줄 없는 번지점프 스캐드다이빙

먼저 스릴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줄 없는 다이빙 스캐드다이빙(Scad Diving)을 소개해보려고 한다. 강원 인제군에 위치한 인제밀리터리테마파크에선 13년도부터 스캐드다이빙을 서비스하고 있다. 스캐드다이빙이란 독일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어 점차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신종 레저스포츠다. 무엇보다 안정성과 편리성이 돋보여

모험레포츠를 즐기는 초보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스캐드다이빙을 하기 위해 점프대로 올라가면, 안전 요원이 주의사항을 준다. 그후 하네스에 카라비너를 채우고, 점프대 중앙으로 이동한다. 이때 몸이 허공에 매달리는데 공포가 절정에 이른다고 한다. 스캐드 다이빙 경험자가 말하기를, 스캐드다이빙의 묘미는 떨어지는 순간이고, 안전요원의 재치로 어느 순간에 줄을 끊을지 알 수 없어서 스릴이 더 늘어난다고 한다. 25m 허공에서 줄이 끊겨 떨어지는 경험은 무섭지만 재미있는 추억이 될 것이다. 또한 인제군은 모험레포츠 천국이기 때문에 다른 레포츠들도 즐길 수 있다. 스캐드다이빙이 위치한 인제밀리터리테마파크는 관광 및 오락요소가 많아 놀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코스를 정해 즐기면 2배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바다를 보며 즐기는 집라인, 씨스카이월드

다음으로 소개할 익스트림스포츠는 인천 중구 무의도에 위치한 하나개 해수욕장의 총 길이 400m를 약 8층 높이에서 타고 내려가는 집라인인 씨스카이월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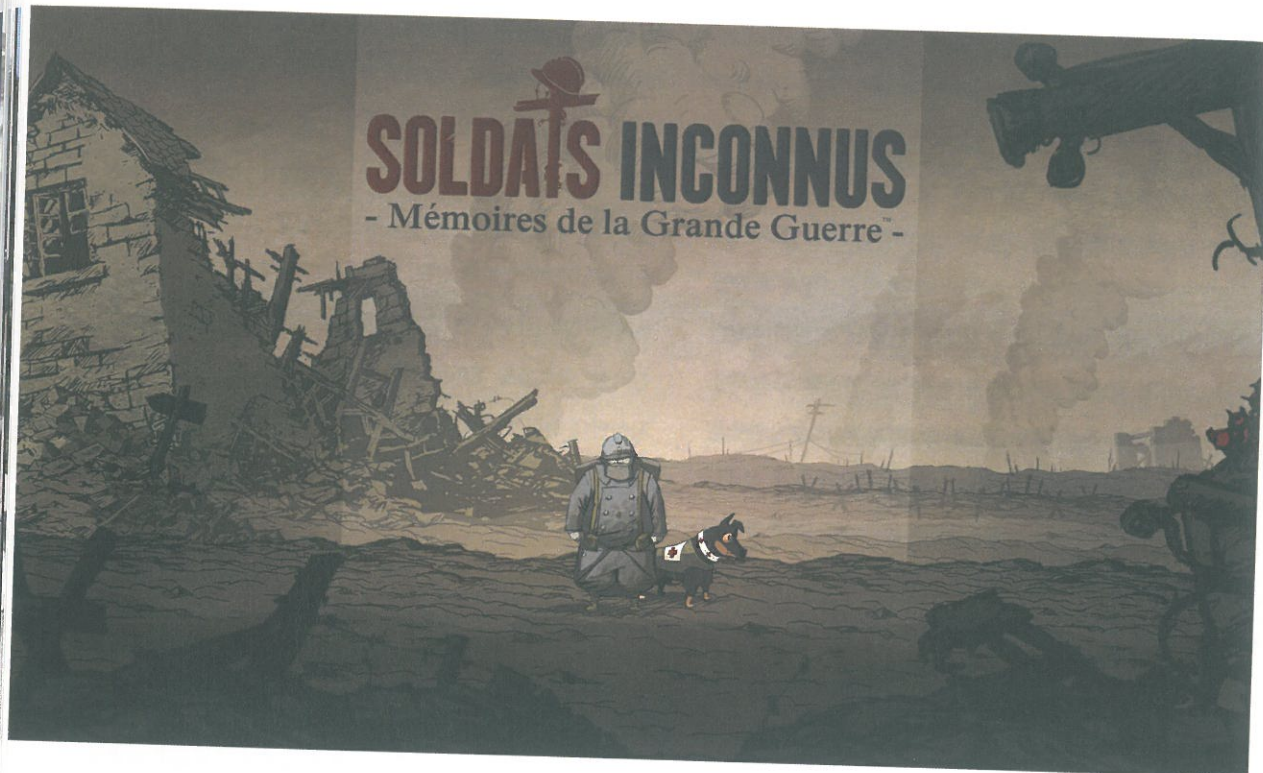
씨스카이월드는 줄 하나에 의지해 빠른 속도로 바람을 가르며 활강하는 액티비트 레포츠로, 나무 또는 지주대 사이에 튼튼한 와이어를 설치하고, 연결된 트롤리를 와이어에 걸어 빠른 속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레포츠이다. 어려운 훈련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기만 있다면 10분 정도의 안내만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며, 인천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에서 타는 집라인은 바다의 아름다움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치며

지금까지 삶을 재밌거나 유익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취미를 몇가지 소개해보았다. 사람들마다 취향은 다르다. 때문에 앉아서 활동 하는 것이 아니라 실외에서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거나, 무서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서 소개해 준 취미들이 맞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취미는 다양각색이고 지금 소개한 취미는 빙산의 일각수준이다. 찾아보면 더 독특하고 신기한 취미들도 많다. 각자가 방학이나 시간이 남을 때 자신만의 취미를 만들어 삶을 더 윤택하게 보내면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고 본다. 여러 취미를 만들어 나중에 삶을 돌아봤을 때 보람찬 일생을 보냈다고 느끼는 자신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이번 소개를 끝내겠다.

새로운 취미 게임

기사: 18정동우 | 검수: 16강석진 | 편집: 16오민석



취미가 문화적 양상을 띈다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위기로 크게 흔들리며 21세기에 접어들었다. 당시의 경제난에 한보, 삼립, 대우, 해태 등 재계를 장악하던 거대 기업 대부분이 순식간에 부도가 나는 최악의 사태까지 벌어졌었다. 하지만 한국은 놀라운 국민적 유대로 순식간에 이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고, 나아가 현재에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의 국가가 되었다. 생활 수준이 증가하자 한국에는 한 가지 문화가 힘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취미를 즐기는 활동이 그것이다. 취미가 단순히 특정 개개인의 특성이던 예전과는 달리, 현재에는 당연한 문화 활동이 된 것이다.

컴퓨터 게임이 취미라고?

취미라고 한다면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여행을 하는 것, 그림 그리기와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취미는 말 그대로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활동들도 취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 게임도 대학생의 취미 중 하나이다. 컴퓨터 게임이 취미라고 말하면 무시하는 사람이 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컴퓨터 게임은 생각보다 괜찮은 취미이다.

높은 가치를 품은 게임

대부분의 사람은 컴퓨터 게임을 단순한 유희라고 여길 것이다. 하지만 사실 컴퓨터 게임은 예술의 종합 콘텐츠라고 불릴만한 고급 취미이다. 수년간 정성스럽게 가다듬은 스토리를 장점으로 내놓은 게임, 세계적 아티스트가 만든 일러스트 속을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즐기는 퍼즐게임,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는 포인트 앤 클릭형 어드벤처 게임, 수준 높은 음악성을 가진 리듬 게임 등, 다양한 형태의 게임이 존재하고, 이에 적용하는 표현방법과 콘텐츠는 무궁무진하다.

다른 취미들과 차이가 없다

또한 뜻밖에 게임은 다른 취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양식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취미생활이 처음 시작했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요소가 있다. 앞에 예시를 든 취미 활동들도 그러하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지 않는 이상 처음부터 쉽게 하지 못한다. 컴퓨터 게임도 마찬가지이다. 누구나 컴퓨터 게임을 처음부터 잘하지 않는다. 컴퓨터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게임을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연습하기 때문이다. 어느 한 가지 일에 무수한 노력을 다해 전문가가 된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없을 것이다. 그것은 게임이어도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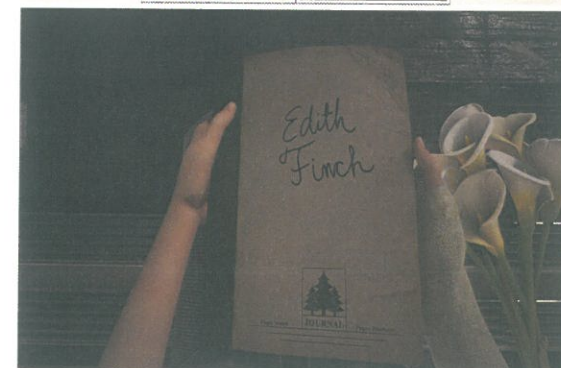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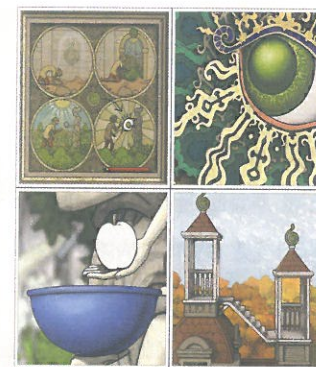
때문에 컴퓨터 게임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취미 중 하나다. 컴퓨터 게임을 취미로 가진 사람들이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활발한 활동을 보이자 다양한 게임들이 유행하게 되었는데, 특히 최근에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유행하고 있다.

배틀그라운드의 유행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은 게임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대학생들에게까지 전국적으로 유행되었다. 이 게임을 설명하자면 2017년 12월 21일에 한국에 정식 출시하여 지금까지도 인기 있는 게임이다. 배틀그라운드는 옷 한 장만 걸친 상태로 시작해서, 낙하산을 타고 떨어진 맵에서 무기를 주워 적과 싸워 생존하는 배틀로얄게임이다. 어디에 어느 무기가 있을지 모르는 무작위성과 언제 적을 만날지 모르는 긴장감, 시간이 지날수록 맵이 좁혀들어오는 긴박감 덕분에 큰 재미를 준다.

스팀에 둘러보자

배틀그라운드는 '스팀'이라는 게임 판매사이트를 통해 출시된 게임인데, 이 사이트는 전 세계의 수많은 게임을 판매하는 세계 최대의 게임 유통 사이트이다. 스팀에서는 배틀그라운드처럼 격동적인 게임뿐 아니라, 예술적이고 재미있는 다양한 게임들도 만날 수 있다. 방학에, 혹은 공강이나 주말에, 게임이 유치한 놀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게임들을 한번 체험해 보는 것이 어떨까?



미래를 여는 힘, 도서관

기사: 익명요청 | 편집: 16오민석



N포세대의 도서관

인생은 B(Birth)와 D(Death) 사이의 C(Choice)다. 우리는 선택을 하기 전에 투입한 자원 대비 산출될 자원을 꼼꼼히 따진다. 바쁜 현대인들은 이런 과정 속에 연애, 결혼 등을 하나씩 포기하며, ‘삼포 세대’를 거쳐 ‘N포 세대’까지 왔다. 그런 그들에게 ‘도서관’이라는 기관이 필요한 공간이라고 물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곳은 아니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현재를 보려면 시장에, 그리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라’는 말이 있다. 도서관이 수행하는 여러 역할 중 어느 것이 ‘미래’라는 가치를 도서관에 담았을까.

도서관의 역할

어떤 공간이 하는 역할이란 것은 시대를 지나오며 더해지고 사라지기 마련이다. 변화는 대개 사회적 흐름에 부합하면서 이루어진다. 지식과 정보가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으로 넘어왔더라도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의 보고로서 전통적인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대학도서관의 탄생부터 시민혁명, 교육 흐름의 변화는 도서관이 교육 센터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었다. 또 시간이 흘러 도서관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굳혀갔다. 하지만 현재 빠른 기술의 발달과 지나친 개인주의화로 인해 이러한 역할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변질된 YOLO

최근 N포세대는 새롭게 ‘올로(You Only Live Once)’로 재탄생하였다. 빠른 변화에 이들은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리고 남은 것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오직 ‘내’가 되었다. 미래 혹은 남을 위해 나와 현재를 낭비하지 않으려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현대인들을 개인주의를 추구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개인주의는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여 행복을 찾던 최초의 올로가 변질되어 남에게 해가 되는 일과 나에게조차 무모한 일을 정당화할 때 쓰이며 점차 편협해졌다.

소통의 단절

그 올로는 변질되어 올로 스웍(상기에서 언급한 변질된 올로)이 되었고 스스로 판단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청소년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 결과, 서로를 서로를 배척했다. 어른들은 올로라며 자신의 갈 길만을 걸어가고 아이들은 올로라며 남아있는 어른들을 외면했다. 이러한 단절은 점차 심화되어 세대 간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선후배 간에서도 심화되고 있다. 지나친 군기에 대한 불만 폭주와 그에 대한 응답은 좋은 방향으로 소통하는 듯 했으나, 곧 대라는 프레임으로 시작된 한 쪽의 일방적인 비방으로 진정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은 사라지고 있다.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의사소통의 단절에는 위와 같은 이유들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의 한정도 꽤나 큰 영향을 미친다. 두 달이면 있던 건물도 부수고 새롭게 지을 수 있는 시대에 이들이 다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은 드물다. 그런 의미에서 도서관은 삭막한 도시의 한 줄기 빛이 될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사회적 안전망이다’라는 말은 ‘아무 때나 빈손으로 가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란 뜻을 담는다. 나이, 빈부, 나라 등을 막론하고 누구나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만큼 모두가 다함께 모여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서관이 지나친 개인주의화로 인해 단절된 세대와 인간 간 소통을 이어줄 공간으로서 대두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도서관의 역할

사회적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폐쇄적인 개인주의는 위험하다. 사회와 개인은 분명히 구별되지만 공존하는 존재이므로 사회적 목적이 없는 개인주의는 사회와 개인의 충돌을 초래한다. 개인의 삶은 결국엔 사회에 귀속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개인주의는 사회적 목적을 잊고 이기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도서관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 도서관은 세계의 학자들이 모여 지식과 문화를 교류하는 장이었고, 이 교류를 통해 지식과 문화는 재생산되며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 발판을 마련했다. 즉, 도서관은 항상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했다. 바로 지금 그 변화의 시점에 온 것이다. 앞으로 그 변화의 시점에서 도서관은 항상 최선을 선택할 것이다. 도서관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사회가 잘 이루어진 곳이 많다. 지금 지나친 개인주의화로 인한 단절과 세대 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의 부재는 도서관이 대답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의 순간에도 도서관은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존재할 것이다.

새로운 문헌정보전공, 로고

기사: 16오민석 | 편집: 16오민석



응용인문학부
문헌정보전공
LIBRARY INFORMATION SCIENCE

3년 간의 학사개편

16년에 입학하여 3학년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라면 아마 학사개편이 아닐까 싶다. 입학하기 전까지 지식정보학부였던 우리 전공은 16년 이후 한국어문학부(현 국어국문전공)와 응용인문학부로 통합되어 문헌정보전공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일 년 뒤, 학교에서는 또 다시 트랙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17년 우리 학과는 정보문화 트랙과 라키비움비즈니스 트랙이라는 두 개의 트랙으로 나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으며, 위 두 트랙은 18년 올해 다시 도서관정보문화 트랙(구 정보문화 트랙)과 디지털인문정보학 트랙(구 라키비움비즈니스 트랙)이라는 새로운 트랙명으로 교체가 되었다.

트랙명에 의한 혼란

위와 같이 학사개편이 이루어지는 동안 본인은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편집위원과 부장으로서 학생회 활동을 해왔었다. 이에 누구보다 선후배를 접할 일이 많았었고 학생회로서 우리 전공을 듣고 있는 학부생들의 고충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많이 얘기가 나왔었던 것은 지난 3년 간 수 많은 학사개편으로 인하여 선배든 후배든 자신의 전공을 알아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 입학하여 모든 것이 낯선 신입생들에게는 자신들을 도와 줄 같은 소속의 선배조차 찾기 힘들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자신이 속해 있는 트랙명이 다른 학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 '문화', '디지털'이라는 키워드와 겹침으로써 타 트랙과 구분되는 우리 전공 트랙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로고의 제작

학생회 부원이자 부장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다. 매년 학생회의 공약으로서 나오는 홍보강화에 있어 보다 본질적으로 학생회에서 홍보를 하게 된다면 적어도 우리 학과 전공에서 시행되는 행사임을 신입생을 포함한 모든 학부생이 한 눈에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표처럼 일종의 상징과 같은 시각적 요소가 필요했었다. 그러한 목적에 의하여 제작한 것이 첨부된 사진 중 가운데에 해당하는 17년 문헌정보전공의 로고였다.

이전에도 학부차원에서의 로고는 존재하였으나 로고 자체의 이미지 품질이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 15학번 이전까지만 사용하던 학부명이었기에 17년 '도란도란' 학생회 때 처음으로 그림비에 해당로고를 제작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로고의 상징요소

학과로고를 제작함에 있어서 우리 학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요소는 '책'이었다. 이러한 책이라는 요소를 기반으로 가장 겉테두리에는 책을 올려두기 위한 교탁, 그 안에 책을 상징하는 책 테두리를 배치하였고, 최종적으로 우리 전공의 약어인 L.I.S(Library Information Science) 또한 하나의 책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상징화 하여 학과의 상징성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원형의 로고형과 보다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응용형의 로고, 총 두 가지 타입의 로고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자 시도하였다. 제작된 로고는 현재 많은 학부생들에게 좋게 평가받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의 로고를 기반으로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답사를 비롯해 문화부 카드뉴스, 카톡플러스 친구, 한성지정(문헌정보) 사용하여 활용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지식정보학부



그림비 개편

기사: 16오민석 | 편집: 16오민석



편집부의 변화

2018년 문헌정보전공 학생회 편집부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라면 그림비에 관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실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교수님이 계셨다는 것이다. 기존에 학생회 부서는 기획부, 도합부, 문화부, 선전부, 편집부 중 오로지 문화부만이 박성재 교수님이 담당하시고 계셨으며, 나머지 부서는 담당 교수님과 같이 피드백 해 줄 수 있는 조인자 없이 기존에 이어져 오던 방식으로 부서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1학기 말 무렵, 정경희 교수님께서 그림비 웹퍼블리싱 소모임 지도를 맡게 되셨다. 이에 자연스럽게 정경희 교수님께서는 웹퍼블리싱의 대상인 그림비에 관해서도 도움을 주기 위해 현 문제점에 관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셨다. 이를 통해 기존 방식에서 비롯된 여러가지 편집부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었다.

그림비의 구성변화

편집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학과 소식지인 '그림비'를 제작하는 부서로 편집부 내 기사를 취재하고 원고를 작성하는 '기사팀'과 기사팀이 제작해준 원고를 바탕으로 최종 출판할 원고를 편집하는 '편집팀'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기존 방식의 그림비는 단 구분 없이 일반 줄 글 형태의 나열로서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좋게 말해 다채롭고, 나쁘게 말하자면 지저분하게 단순 이미지와 텍스트로 도배된 형식의 기존의 기사 글에서 단순하고 읽기 편하게 또한, 적절한 이미지 사용으로 눈의 피로를 줄이고 가독성을 높혔다는 것이 이번 그림비의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단순히 학과 소식지로서 단순히 행사에 관련된 기사만 실는 것이 아닌 우리 학부 전공생들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글감을 다양화하였다.

제작방식의 변경

3년동안 편집위원과 부장으로서 활동해오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의 그림비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제작하는 일은 한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기존에 A4 방식으로 제작할 때 제시되어 있던 기존의 틀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B5방식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서체, 서체 크기, 자간, 비율 등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에 학부생들과 박성재 교수님으로부터 꾸준히 개선점으로 지적받던 단 구분과 박희진 교수님으로부터 지적받았던 이미지 배율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홍보책자로 제작중인 '한성순보'를 비롯하여 국어국문전공 학생회의 도움으로 국어국문전공에서 매년 제작하는 '자유인'을 받아가며 수도 없이 많은 소식지와 잡지들을 보고 연구하였다.

변화하는 그림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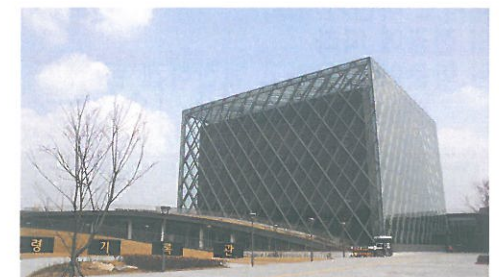
이전의 학과 소식지인 그림비가 단순히 학과행사에 참여한 구성원들만을 위한 일종의 학과 앨범 같은 존재였다. 이제는 더 나아가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는 문헌정보전공의 다양한 정보들과 소식들을 하나의 책으로 접할 수 있는 책자로, 또한 학과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얻기 힘든 고학년들을 위한 안내책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문정인의 밤 행사에서나 학과실에서 오로지 책의 형태로만 받을 수 있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학과 소식지인 그림비를 온라인 환경에서 접할 수 있도록 정경희 교수님께서 추진하시는 '그림비 웹퍼블리싱 소모임'도 진행 중이니 p11에 문헌정보전공 소모임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문헌정보전공 소식

대통령기록관 (학술당사자)

기사: 16오민석 | 편집: 16오민석



대통령기록관을 가다

1948년 8월 15일, 5·10 총 선거로 한반도는 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출범을 선포 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3·15 부정선거, 군부 독재, 광주 민주화 항쟁, IMF 외환 위기 등과 고난을 겪어왔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에 쓰러지지 않고, 국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선택하였으며, OECD에 가입하여 선진국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 후, 민주·경제적인 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이와 같은 역사는 한국이 상상의 고향을 장래에 열어낸 값진 교훈이다. 우리는 현존의 처지에 남긴 유언장 같은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즉, "과거를 잊은 국가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미 말을 가슴 속에 품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정권의 국경선단 같은 부끄러운 과거를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말이다.

이러한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여 전 미래의 후손과 나이지, 그 후손의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것이다. 바로 대통령 기록관이다.

도착

한성대학교에서 세종시 대통령기록관까지의 거리는 차로 약 2시간 30분 정도이다. 멀리만 알고 접했던 한 시간, 소소한 대화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내고, 드디어 문헌정보학과 방문은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에 도착했다. 세종시의 참관은 그야말로 막막하였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하얀 공원과 그 사이사이에 있는 거대한 벽, 광복절이 특색있는 모양의 건물들이,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이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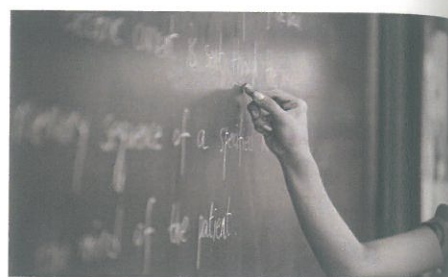
통섭의 식탁

제작: 문화부 | 편집: 16오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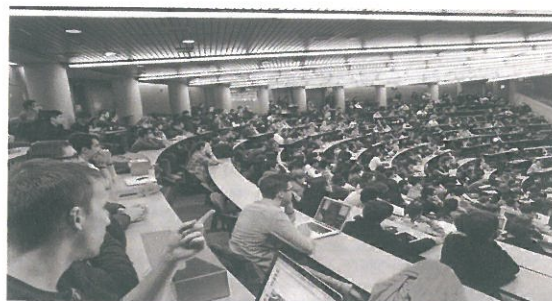
#1, 당신의 전공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특성에 맞춰
문과 혹은 이과로 나누어 공부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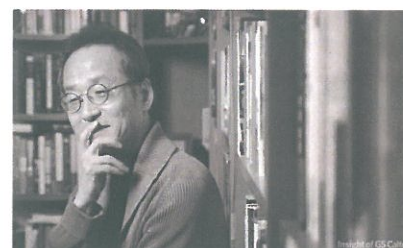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전공에 따라
한정된 학문에 몰두하고 매진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는
다양한 분야가 모여
혁신이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는
이를 '통섭'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한다.
그는 각자의 분야에만 몰두해서는
새로운 사고를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교수는
통섭의 시대에서 갖춰야 할 덕목은
'스펙'이 아닌 '소양'이라며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융합형 인재, 계획성 있는 기획 독서로
시작한다

최재천 교수가 소개하는 > 융합한 지식의 만찬

통섭의 식탁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
[029.1 *638≡]

5층 (인문,자연과학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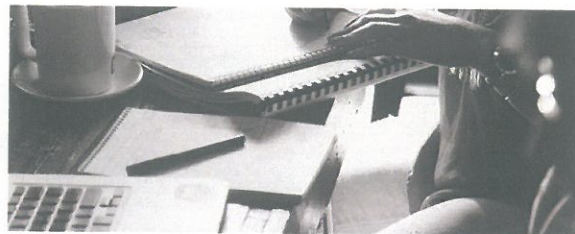


여러 분야의
지식의 영역을 넓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획 독서'를 추천했다.

말그릇

제작: 문화부 | 편집: 16오민석

이 책은 최재천 교수가 선별한 다양한 분야의 책 읽기를 코스 요리에 빗대어 소개한다. 다양한 학문과 분야의 책들과 함께 보면 좋은 책들도 소개하고 있어서 지식의 통섭과 확장을 가능하게 했다.



" 이 책 《통섭의 식탁》은 기획 독서의 목록을 제시한다. 미래의 통섭형 인재를 꿈꾸는 독자라면 반드시 읽고 씹음해야 할 책들의 목록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출판사 서평



" 그렇게 할거면 그만둬! "

" 너 그렇게 살지 마. "

" 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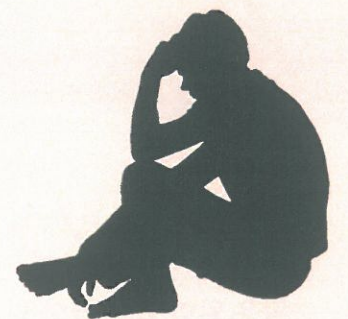
" 됐어! 시키는 대로나 잘해! "



"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죠! "



" 말해놓고 후회할 때가 많아요... 어떡하죠? "



"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

문헌정보전공 '다움' 문화부

부장: 최승현 (17)

차장: 윤소연 (17)

당신의 '말'은 당신을 닮았다.

당신의 말그릇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반면, 많은 말을 담을 수 있을 만큼
'말 그릇'이 큰 사람은

담은 말이 쉽게 세어 나가지 않아
필요한 말만을 골라낼 수 있다.

말을 담을 공간이 없이
작은 '말 그릇'을 가진 사람은

말이 쉽게 흘러 넘쳐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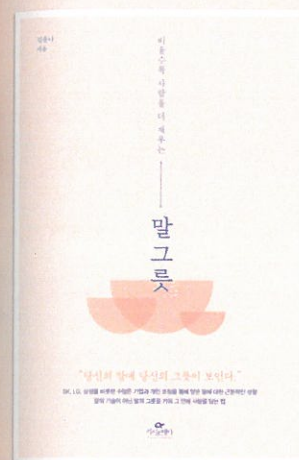


"당신의 말 그릇을 함부로 버려두지 말라"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을
하나씩 지니고 살아간다.

이 책, 「말그릇 (김윤나 지음)」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말 그릇'을 다듬고 키우고 깊어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 기술과 변화를 제시하여 준다.

당신의 말이 태어나고 자라는 곳 —
'말 그릇'을 키워 관계와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 5층
(인문,자연과학자료실)

[189-8670]



문헌정보전공 '다음' 문화부

부장: 최승현 (17)
차장: 윤소연 (17)

부원:
유가람(16) 임수현(16)
김현승(18) 장지원(18)

언어의 온도

제작: 문화부 | 편집: 16오민석



급박한 일상에서
쉼표가 필요하다면,

따뜻한 공감의 말

한 마디가 필요하다면,



작가님과 함께
한 공간에서 힐링을 받는 느낌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나'는 무엇일까?

같이 있는 사람은 묵직한 향기를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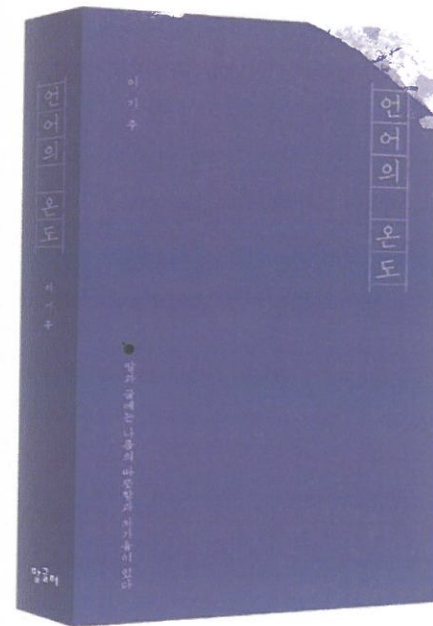
가까이 있을 때는 모른다.

향기의 주인이 곁을 떠날 즈음 그 사람만의 향기, 인향이 밀려온다.

사람 향기는 그림자와 같아서 만 리를 가고도 남는다.

- P.293

가볍게 일리는 책이지만,
담긴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은



언어의 온도 -이기주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

3층(어문학자문실)

818 0 6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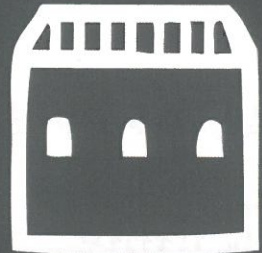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회
'다움' 문화부 제작

인생 우화

제작: 문화부 | 편집: 16오민석

인생 우화 - 류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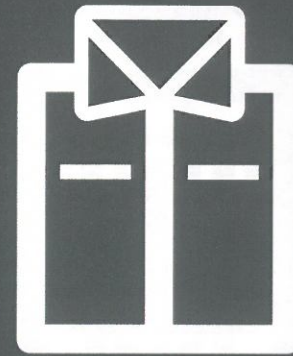
‘혜움’이라는 마을에
물장수 페이사흐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인생 우화 - 류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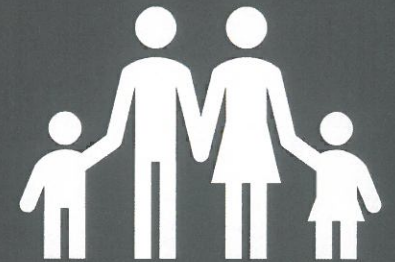
이 가족은 형편이 좋지 않아
채소를 기를수도 없었고,
가진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인생 우화 - 류시화



하지만, 셔츠에 새 단추를
하나만 달려니 새 단추가 너무
어색해 보였습니다.

인생 우화 - 류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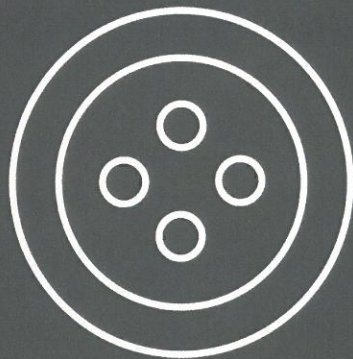
새 셔츠를 입으니,
점점 어색한 부분이 생겼고, 결국
온 가족이 새 옷을 입게되었습니다

인생 우화 - 류시화



비록 돈은 없었지만,
페이사흐 가족은 가진것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인생 우화 - 류시화



어느날, 동전이 생긴 페이사흐는
셔츠에 달 단추를 사기 위해
옷가게에 갔습니다.

인생 우화 - 류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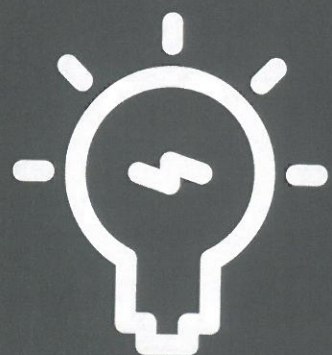
하지만, 새 옷들은 페이사흐가 가진
동전 하나에 비해 너무 비쌌고,
결국 단추 하나만 사게 됩니다

인생 우화 - 류시화



단추 하나를 사고 돌아오는 길에,
가족들은 자신이 새 옷을 가질 수
없다는것에 실망합니다

인생 우화 - 류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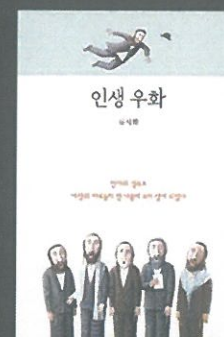
그렇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가족들은 그 단추 없이도
잘 살수 있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 우화 - 류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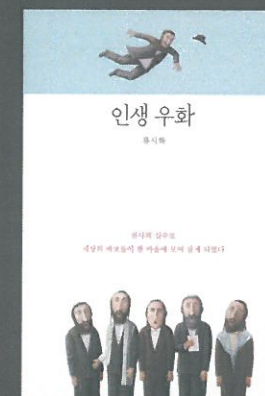
그래서 그들은 단추를 밖에
버리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생 우화 - 류시화



간단하면서도 은유적인 교훈을
선사하는 '인생우화'는 우리를
웃고, 생각하게 해줍니다

인생 우화 - 류시화



인생우화 - 류시화

8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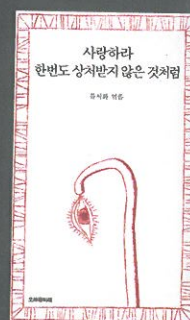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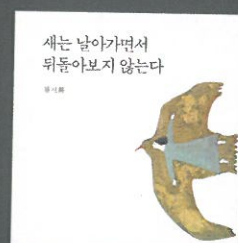
(학술정보관 소장도서 아님)

인생 우화 - 류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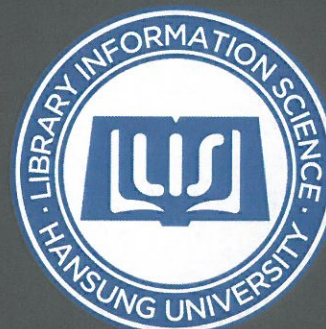
'인생 우화'의 작중 배경인 혜음은
세상의 모든 바보들이 모인 마을의
에피소드를 담은 책입니다

인생 우화 - 류시화



여러 베스트 셀러들을 집필한
류시화 작가의 차기작인
'인생우화'

인생 우화 - 류시화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회
'다음' 문화부 제작

연금술사

제작: 문화부 | 편집: 16오민석

'연금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



불로장생의 묘약을 만들거나



납을 금으로 변화시키는
일

”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

우리 모두 자신의 보물, 자아의 신화를 찾아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

산티아고가 보물을 찾으러 가면서 만나는



사건들, 집시 여인, 늙은 왕, 연금술사와 함께

이들을 포함한
우리는 모두 나만의 보물을 찾고 싶어합니다



양치기 청년 산티아고의 여행을
따라가고 싶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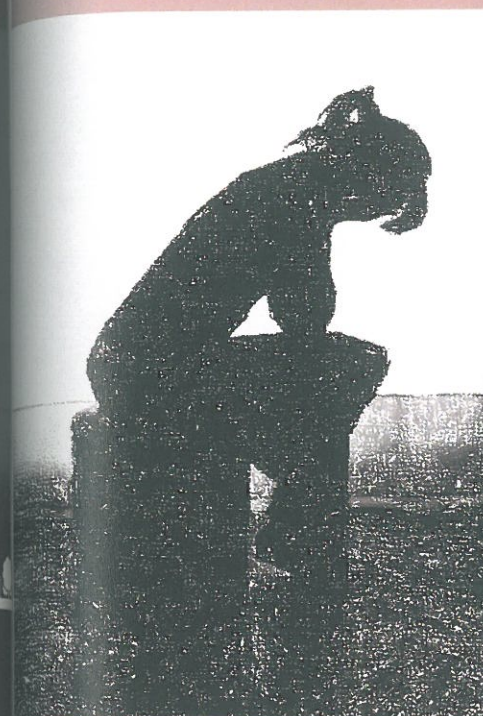


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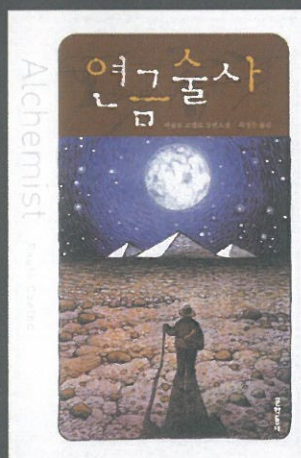
제작: 문화부 | 편집: 16오민석

당신이 찾고 싶어하는
당신만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자아의 신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된 유일한
의무지.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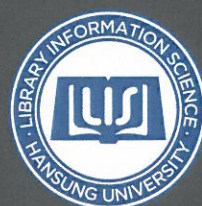


“여기 한 명이 더 살아 있다.”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 3층
(어문학자료실)

[879.3 ㄴ532 ㅁ]



한성대학교 문헌정보전공
'다움'
문화부

그녀는 고향의 것인 다슬기를 꼭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았다..





“꼭 한 번 다시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출처: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60820-03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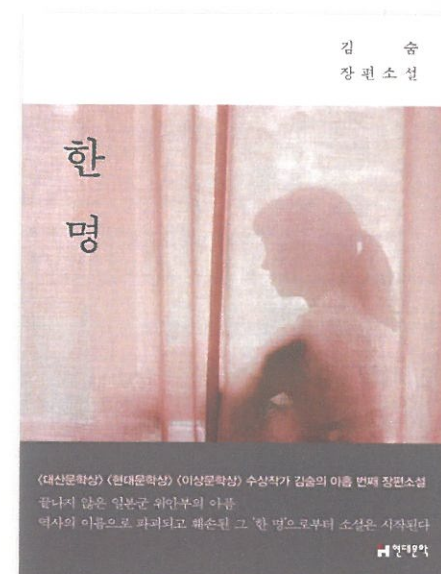
사진: 박옥선 할머니



300여 개에 이르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실제 증언들을 재구성한 서사.

그녀들의 용기 있는 선택.

사진: 김해평화의소녀상



김 숨
장편소설

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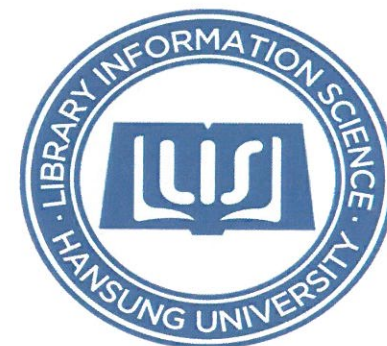
〈대신문학상〉 〈현대문학상〉 〈이상문학상〉 수상작가 김숨의 이름 번째 장편소설
끝나지 않은 일방군 위안부의 아픔
역사의 이름으로 파괴되고 해산된 그 '한 명'으로부터 소설은 시작된다
연재문학

한 명 - 김 숨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

813.7 ㄱ799 ㅎ

3층(어문학자료실)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회
'다움' 문화부 제작

회장단

회장: 15하동원 | 부회장: 17조항규

회장단의 역할

회장단의 역할은 크게 서류 업무, 학생회 부서 관리, 행사 관리 등으로 나뉩니다. 서류 업무가 적지 않은 편인데, 주로 MT를 가는 경우에 학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비 관련하여 총대위원회의 회계 및 감사를 받습니다. 이때에도 행사 별로 다양한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행사의 총괄을 맡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행사의 마무리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학생회 회의를 주최하고, 학생회 임원들을 통솔함으로써 전체 학생이 원활하고 재미있는 행사가 되도록 진행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안전 관리를 위하여 회장단은 특히 교대로 안전 관리 규정에 따라 학생들을 인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단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진행했던 일은 각 부서(기획부, 도합부, 문화부, 선전부, 편집부)를 만나보는 일이었습니다. 부서의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각 부서의 원활한 운영이 곧 학생회의 운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전반적인 부서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

학생회장은 지식정보학부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소집된 학과 운영 위원회(이하 학운위)의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는 학과를 비롯한 학교 전체의 각종 행사의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세부 내용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학교 전체의 행사에 대해서는 중앙 기구의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을 두고 논의를 하고, 새로운 의견을 단과대학을 통하여 다시 전달합니다.

느낀 점

제일 먼저 힘들었던 점은 너무 큰 행사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 행사 하나하나가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행사 하나가 끝날 때쯤 새로운 행사의 준비로 설 특이 없었습니다. 행사 자체는 학생회와 함께 진행하여 각각이 고통스럽진 않았으나, 졸업시험과 자격증 시험 등의 개인적 사정 또한 하필 그 기간에 많이 겹쳐 힘들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학생회를 운영하면 학과에 도움이 될까하는 고민 자체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힘들다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한 고민 속에서 누군가는 행사를 즐겁게 즐기고, 한 마디 감사 인사에 또 만족하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굳이 힘들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나가는 말이라도 고생했다, 좋았다, 이렇게 인사해 주어서 한순간에 그 힘들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힘들었던가 생각하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학생회장을 하며 배우는 것들은 대부분 무형의 것들이라 어떤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본인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학생회를 하다 보면, 돌발 이벤트와 내·외부적으로 의견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감정을 숨기려 노력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 오히려 그로 인해 더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학생회 일에서는 그런 적이 드물어 체감하지 못했으나, 사서교사 실습을 가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성장함을 느끼지만, 제가 아직 느끼지 못한 성장과 발전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획부

부장: 17한지원 | 차장: 17조유경

기획부의 업무

과 내 다양한 행사의 기획과 준비를 통해 안전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더불어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학우들 간의 활발한 과 내 활동을 장려합니다. 또한 문헌정보전공의 학과 및 트랙의 각종 과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합니다.

개강파티와 MT, LT 기획하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 간식사업 진행하며, 스승의 날 행사 준비합니다. 또한 매년 진행되는 문정인의 밤 행사 준비를 합니다.

업무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강파티와 MT, LT 기획의 경우 장소를 섭외하고 정해진 MT 및 LT 장소를 답사합니다. 다음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의 경우 간식사업을 진행합니다. 간식사업의 경우는 미리 학우들에게 설문조사를 부탁한 뒤 그 결과에 맞추어 간식 주문을 진행합니다. 그 외 스승의 날 행사 준비와 문정인의 밤 행사 준비의 경우 설문조사와 기념품 주문 및 뒤풀이 장소 섭외합니다.

기획부의 장점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면서 과 내 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만들면서 많은 선배들, 동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들도 많은 장점이 있지만 기획부에서는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느낀 점

부장: 기획부 부장을 맡게 되어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또 진행했던 것들이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과의 동기들, 선배들을 위해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다는 것이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 기획부에는 많은 후배님들이 모여 기획부를 잘 이끌어주고, 또 다양하고 새로운 행사를 기획해 학업에 지친 학교 생활에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장: 기획부에서 차장이란 자리를 맡아 다양한 과 행사를 기획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른 부서들과 달리 부원이 없어 조금 아쉽기도 했지만 저희가 기획한 행사들에 많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보람찬 일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활부

부장: 17허채빈 | 차장: 17김현진, 17최승규

도활부의 업무

도서활동부는 문헌정보의 특성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서라 할 수 있습니다. 도활부는 도서관으로 봉사를 나가고, 견학을 가는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직접 접하며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실제로 활용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기 중은 물론 방학 중에도 꾸준히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서는 학기중 방학중 모두 가리지 않고 단순히 장서를 관리하는 도서관 봉사, 이용자들을 교육하는 서비스 교육, 숙박 봉사활동, 북 페스티벌 등 학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업무의 진행방식으로는 부장과 차장이 활동을 기획하고 부원들과 같이 상의하여 활동합니다.

도활부의 장점

저희 도서활동부는 다양한 문헌정보학과 관련 활동을 해볼 수 있는 부서입니다. 도서관 견학, 도서관 봉사, 북 페스티벌 부스 참가, 방중 도서관 숙박봉사 등으로 학과에 대한 이해도를 쌓고 봉사를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활동에 참가하면 비교과 포인트와 봉사시간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활동을 통해 선후배간의 사이도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문헌정보학과에 관심이 있고 선후배간의 친목을 원한다면 저희 도서활동부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느낀 점

부장: 제가 사랑하고 많이 아끼는 한성대학교 문헌정보전공 도서활동부! 부족한 부장인 저를 믿고 부서를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ㅎㅎ 내 옆에서 같이 고생해준 현진, 승규 너네한테 많이 미안하고 고마워.. 또 우리 귀염폭발러블리 나의 소중한 도활부 부원 여러분! 언제나 믿고 따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5대 학생회 다음~ 다음도 고마운거 알죠?! 마지막으로 올해

내 옆에서 같이 고생해준 현진, 승규 너네한테 많이 미안하고 고마워.. 또 우리 귀염폭발러블리 나의 소중한 도활부 부원 여러분! 언제나 믿고 따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5대 학생회 다음~ 다음도 고마운거 알죠?! 마지막으로 올해 너무나 성실한 도활부 부원들이 있었기에 저희 도활부가 동그랗게 예쁘게 유지될 수 있었어요~ 내년에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도활부 짱!

17장동욱: 2년간 도활부 활동을 통해 전공과 관련하여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이번 성북구 북페스티벌에서 부스 운영해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남은 저에게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니다. 내년에 또 도활부 활동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친구들이 좋은 프로그램과 함께 지금보다 더 활성화된 도활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18권서영: 1년 동안 도활부 활동을 하면서 너무 재밌게 잘 지냈고 선배, 동기들과도 함께 활동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모든 활동들이 다 유익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성북책모꼬지 참가가 기억에 남는다. 책과 관련해 부스를 꾸미고, 북페스티벌에 참가하여 다른 부스들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었다. 책과 관련한 여러가지 활동을 즐기고 싶다면 도활부에 들어 가는 것을 추천한다.

18박예원: 1년동안 도활부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핸드폰 교육을 하러 갔던 것 입니다. 핸드폰 조작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도와드렸습니다. 고맙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도활부를 통해 많은것을 얻게되어 좋은 한해였습니다~!

문화부

부장: 17최승현 | 차장: 17윤소연

문화부의 업무

● 비전

문화부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모여 문헌정보전공 학생회의 문화가 될 것이다. 그 문화는 문헌정보만이 아니라 다른 과와도 융합·협업하여 만들어질 수 있다.

● 역할

문헌정보전공 학생회를 외부로 노출시키기에 유리한 부서이다. 우리는 북 카드 뉴스, 북 트레일러 영상 제작을 통해 sns에 게시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학교 밖에서도 홍보가 가능한 부분이다.

● 업무 진행방식

먼저, 북 카드 뉴스에 대해서이다. 북 카드 뉴스는 개인이나 의견이 맞는 부원끼리 모여 만들어도 되는 방식이다. 책을 읽는 것은 기본이고, 만드는 방법은 ppt로 제작을 한다. 다음은 북 트레일러 영상이다. 부원들이 다 같이 모여 한 책의 챕터 중 할당량을 부여받아 나눠서 읽어오는 것이 시작이다. 읽은 후에 회의를 통해, 책의 내용, 분위기, 떠오르는 색상, 느낌 등을 공유한다. 이 회의록을 바탕으로 bgm 구해오기, 그림 스캔, 그림 콘티, 동영상 제작 중 하나에 부원들의 역할이 나뉜다. 그림을 그리는 부분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거나 그림 그리기에 재능이 있는 타학부나 인문학부의 학생들을 구한다. 이는 문화부 소모임 활동을 통해 그림을 그리는 학생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콘티는 ppt로 작성을 하였는데, 이를 제작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림을 그리는 학생들이 책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이고, 우리 문화부가 원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이다. 각각 진행하는 것에 기간을 두고, 스캔된 그림을 가지고 동영상을 제작한다.

문화부의 장점

기획에서는 창의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획능력이 중요한 곳에서 자신을 뽐낼 수 있다. 제작에서는 기술적인 부분, 미적인 감각, 센스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과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또, 문화부 담당 교수님과 긴밀한 사이가 될 수도 있다.

느낀 점

부장: 솔직한 심정으로, 학생회를 처음 맡았을 때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많았다. 새 출발을 게 된 문화부라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도 많았고, 내가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격려와 칭찬도 많아서 괜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적이 많았다. 힘들고 어려웠던 점들도 있었지만 지난날들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이 일을 하며 성장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대인관계, 간접적인 사회경험, 맡은 일에 대한 중대한 책임감, 등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줬던 활동이었다. 어쩌면 별 볼일 없었을지도 몰랐을 나의 2 학년을 가득 차게 만들어 준 시간이었다.

차장: 도촬부에 속해있다가 문화부 차장을 맡게 되어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좋은 부장님과 부원님들을 만나 한 해동안 조금이라도 더 잘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문화부는 카드뉴스, 북 트레일러 등 콘텐츠를 제작하는 활동을 하는 부서이다. 활동을 하면서 바로바로 결과물을 만들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문헌정보학과 홈페이지와 문헌정보학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업로드되면 학과 사람들의 좋아요를 받고 댓글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어서 피드백도 얻고 칭찬도 받고 그 덕분에 더욱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다. 모두 감사합니다.

선전부

부장: 17황수진 | 차장: 17문성철

선전부의 업무

한성대학교 문헌정보전공의 모든 소식을 학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부서입니다. 선전부는 대표적으로 '자보(포스터)'와 페이스북 페이지 '한성지정'을 통해서 학과 내 행사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보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학우분들이 문헌정보전공의 소식을 접할 수 있게하기 위해 행사 1개당 자보 2-3개를 제작하여 우촌관, 탐구관 등 학교 곳곳에 붙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한성지정에는 행사 홍보와 더불어, 지난 행사의 사진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한성지정 페이지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난 행사 사진 구경하시면서 좋았던 추억을 되살려보세요.

선전부의 장점

선전부는 문헌정보학과의 여러 소식들을 그림 자보를 통해 홍보하고 널리 알리는 부서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학생들보다 학과 내에서의 소식들을 빨리 전해 들을 수 있으며, 전반적인 그림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성지정'이라는 페이스북(SNS) 페이지를 통해서도 학과 소식을 홍보하고 있어 그림뿐만 아니라 글 솜씨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느낀 점

부장: 부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 한 것 같아서 부원들에게 많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와주시고 맡은 바 잘 해내준 저희 선전부 여러분한테 너무 너무 감사해요. 남은 시간 동안도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전부 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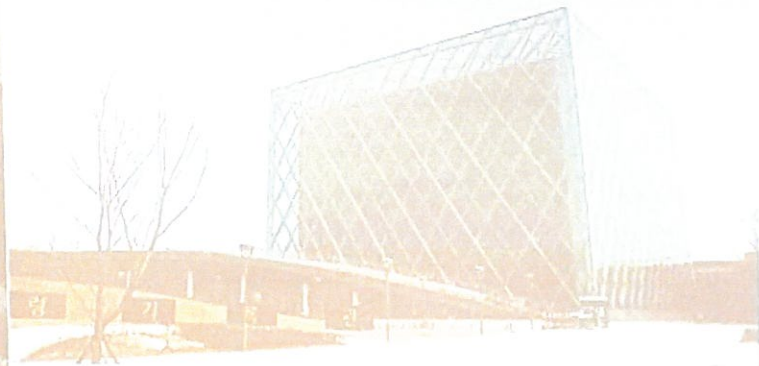
차장: 선전부에 입부한 1학년 때는 막연히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자보를 만들고 모르는 것에 대해 물어보며 제작을 했는데, 2학년이 되고 저희가 후배들에게 공지하고 알린다는 게 아직도 어색하고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이번 년에도 선전부에서 여러 자보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선전부가 만든 자보를 보고 몰랐던 학과 소식을 알게 되거나 참여하게 되었을 때 가장 뿌듯합니다.

18이주영: 선전부 활동을 하면서 문정과 대표행사를 홍보한다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며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평소에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선전부원으로서 제 끼를 마음껏 뽐낼 수 있던 것 같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선전부 짱짱!

18우민혁: 학생회가 진행하는 활동을 알리는 일. 처음에는 그저 정보를 전할 뿐인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재밌게 읽었으면 해서 귀여운 캐릭터를 그렸고 중요한 정보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퇴고를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배님들과 동기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교를 돌아다니다 우리가 쓴 자보가 보이면 웃고는 했습니다. 선전부에서의 활동 즐거웠습니다. 함께 일해서 즐거웠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2학기 잘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기록관(학술답사1)

가장: 16강석진 | 편집: 16오민석



대통령기록관을 가다

1948년 8월 15일, 5·10 총 선거로 한반도는 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출범을 선언 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3·15 부정선거, 군부 독재, 광주 민주화 운동, IMF 외환 위기 등의 크나큰 고난을 겪어왔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국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확립하였으며, OECD에 가입하여 선진국들과 당당히 어깨를 잇는 등의 민주·경제적인 성과를 이룩해냈다. 이와 같은 역사는 한국이 상징이 고령을 감내하며 걸어온 길인 교훈이다.

우리는 윈스턴 처칠이 남긴 유명한 명언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즉, "역사를 잊은 국가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이 말을 가슴 속에 굳게 꽂아야 할 것이다. 박물관의 정원과 국채보상 길은 부끄러운 과거를 후손에게 물려주자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여 현 미래와 후손에 나가기, 그 후손과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거리가 있다. 바로 대통령 기록관이다.

도록

한강대학교에서 세종대 대통령기록관까지 가는 차로 약 2시간 30분 정도이다. 도착한 땀과 일어난 긴 시간들, 소중한 데하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내고, 드디어 문헌정보학과 일련된 세종대 대통령 기록관에 도착했다. 세종대의 정원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했다. 이곳에서 자료로와 알맞이 이어진 공원을과 그 기이하게 있는 거대한 배, 광복 같이 펼쳐있는 모험의 건물들이, 마치 다른 세계에 있을 듯한 듯한 장관을 지어냈다.

편집부

부장: 16오민석 | 차장: 16강석진

편집부의 업무

편집부는 '그림비'라는 정기간행물을 제작하는 부서입니다. 편집부의 업무는 크게 기사작성과 편집으로 구분됩니다. 각각 편집부 내에 기사팀과 편집팀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사팀의 업무는 글감 선정, 취재, 자료 채집, 기사 원본 작성 등이며, 편집팀의 업무는, 기사팀에게 받은 기사 원본과 자료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핀 후, 책에 적합한 형태로 디자인을 구상해 가공하는 것입니다.

편집부의 장점

편집부 활동을 하게 되면 다양한 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평소에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비 제작으로 출판과 습작에 관련된 경험과 기술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림비는 '책'이라는 형태가 있는, 편집부 활동의 결과물은 유형의 결과물로써, 이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자 할 때 스펙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느낀 점

부장: 부장을 맡고나서 올 한해는 정말 정신없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 해 그림비 개편은 그림비 역사상 유래없는 대대적인 개편이었으며, 이로 인해 작업시간 또한 몇 배는 늘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부장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그 동안의 봐오면서 느꼈던 그림비를 변화시키고 싶었던 욕심과 스스로가 이것을 어디까지 구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즉, 욕망과 현실 사이의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과 올해 총 2년 간의 그림비 제작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담당하면서 마감기한을 지키기 위해 못받은 원고를 받으려 작가를 독촉하는 편집장처럼 저 또한 전반적으로 그림비 기사를 다루는 편집부 차장에게 많이 독촉했습니다. 또한 이 개편과 맞물려 새로운 배포방식인 웹퍼블리싱까지 고민하게 되면서 많이 바빠 우리 부원들을 많이 챙겨주지 못한 점에 대해 지금까지 미안한 마음이 많이 큼니다. 못난 부장 밑에서 묵묵히 고생해 준 차장과 편집부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그림비 개편에 있어서 국어국문전공 소식지 '자유인'을 참고자료로 제공해주셨던 정윤성 선배님, 같이 일 하면서 고생해준 학생회 부·차장들, 항상 고마운 동원이 형, 그리고 올 한 해동안 편집부를 올바른 길로 지도해주셨던 정경희 교수님과 그 외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차장: 새로 발간된 그림비는 대대적인 개편과 퀄리티 상승을 목표로 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중책을 맡고 있던 저는 편집부 활동으로 인해 정신없는 일 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잠까지 아껴가면서 작업했지만, 그 순간을 후회하거나 싫은 기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림비 차장을 맡으며 소중한 경험과 기술들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개편된 그림비가 유지되며 번창하길 바랍니다.

발행 정보

편집부장 : 16 오민석(편집팀)

차장 : 16 강석진(기사팀)

부원 : 17 윤대원(기사팀)

부원 : 18 정동우(편집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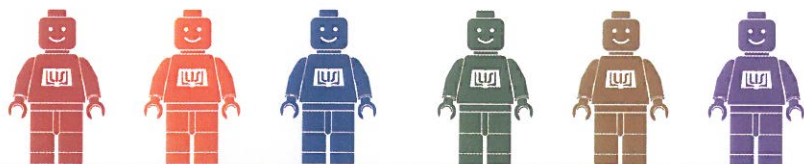
부원 : 16 정미영(기사팀)

부원 : 16 김민중(편집팀)

발행일 : 2018년 12월 6일

발행처 : 응용인문학부 문헌정보전공 '길이남을 편집국'

발행인 : 16 오민석, 16강석진





응용인문학부 문헌정보전공

(도서관정보문화 트랙 / 디지털인문정보학 트랙)

제35대 학생회 「다움」, 같이남을 편집부



02876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진리관 402호
02-760-4087(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통합사무실)
02876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우촌관 207호
02-760-5945(문헌정보전공 실습실)
www.hansung.ac.kr/web/kis(문헌정보전공 홈페이지)